

“구조개혁 없이는 ‘초이노믹스’도 없다”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2기 경제팀의 과제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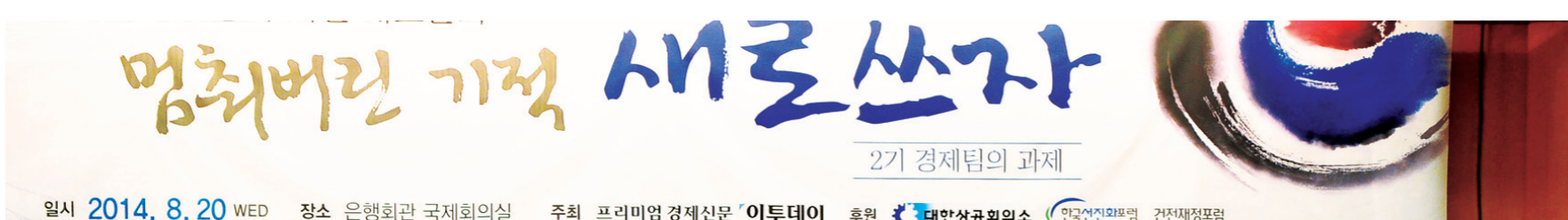
경제전문가들은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양적완화 조치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속에 더 근본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가 주최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선 건설교

2기 경제팀, 규제완화·공공 혁신·사회복지 등 나서야 “체질개선 수반 안된 양적완화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통부 장관을 지낸 최중찬 국가경쟁전략연구원 원장의 발제로 서강대 이장구 부총장, 서강대 최윤열 교수, 새누리당 이해훈 전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이상중계 5면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중찬 원장은 “재정·금융의 양적 확대로 인한 경기활성화가 지속하려면 구조적으로 국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며 새 경제팀을 향해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기업 여건

개선 △저소득층 사회보장 확대 △공공부문 혁신 △도산재개발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 △건전재정 강화 등에 힘을 쏟으라고 제언했다. 최윤열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 1970-1980년대식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훈 전 최고위원은 “중산층 이하의

비어 있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팀의 진단은 맞지만 처방은 엉뚱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 사내유보금 과세 등으로 내수침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체질개선과 근본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 외형적 경기만 활성화하는 양적완화가 일본식 장기 경제불황으로 가는 단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장구 부총장은 경제 문제의 정치적 현상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에는 손병두 선진화포럼 회장,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대토론회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장구 서강대학교 부총장(왼쪽 두 번째)이 토론을 시작하며 발언하고 있다.

부처마다 탄소라... 세수확보 정책 엇박자

담배소비세·자동차탄소세 등 인상폭·과세방식 놓고 의견차
울 세수결손 작년보다 커질듯

부처 간 엇박자로 비판받아 온 최경환 경제팀이 과세를 둘러싸고도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복지 지출 등 나갈 돈이 많아져 나라 재정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세수확보 정책을 두고 담당 부처마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대비)에 비해 2.8%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편차가 낫던 작년보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 의미다. 지방세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 전행정부에 따르면 국세감소와 경기부진 탓으로 작년 지방세 징수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0.1%에 불과해 2009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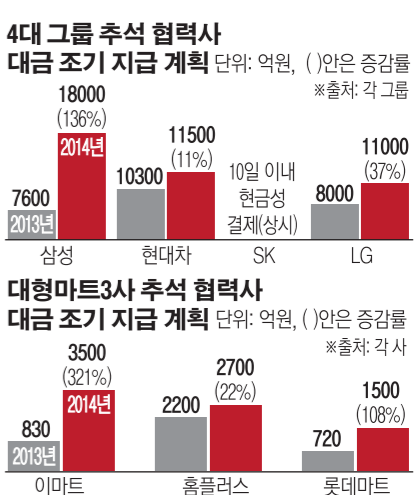
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라 내년 이후 발생할 지방세수 부족분이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담배소비세를 올리고 카지노 매출의 10%에 레저세를 매기는 지방세법 개편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지방세 증세 안건은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증세는 없다’는 대선 공약과 여론을 의식한 탓도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컸다. 우선 세수확충 효과가 큰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해선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인상폭과 과세방식에 있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세는 물가인상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대로 상당폭을 올리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담배값의 25.64%를 세금으로 매기는 안행부 측 증가세 방식 도입에도 아직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지노업 레저세 부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공수요 감소 등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줄 우려가 높으며 도입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협약금 제 도입, 이른바 자동차 탄소세 부과 역시 부처 간 불협화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재계 추석 협력사 지원 지난해보다 2배 늘린다

삼성, 1조8000억 136%↑
대금 조기지급 상생 행보
유통가도 지원 규모 확대

재계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린다. 이는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되살리고, 오랜 불황으로 허덕이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의 올 추석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SK 그룹의 경우 모든 업무상 거래에 대해 10일 이내 현금성 결제 시스템을 운용 중인 만큼 별도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 계획은 없다. 그룹사별로 삼성은 작년보다 136% 증가한 1조8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등 18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현대차그룹도 납품대금 약 1조1500억원을 정상 지급일에 앞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조기 지급되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났다. 대금을 선지급받는 협력사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9개 회사에 부품,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2000여개 업체다. LG그룹은 LG전자(3500억원), LG디스플레이(4600억원), LG하우시스(1000억원) 등 10개 계열사가 총 1조1000억원을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LG그룹의 조기 지원 규모도 작년보다 37% 늘었다. LG그룹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원자재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중소 협력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가도 협력사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늘렸다. 지급 시점도 최대 10일 앞당긴다. 이마트는 작년보다 무려 321% 증가한 3500억원을 2800여개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 이마트는 지원 대상 협력업체도 지난해 1390여개에서 대폭 늘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지난해보다 각각 22%, 108% 증가한 2700억원, 1500억원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의 사정이 더욱 안 좋은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기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진·이다람 기자 js62@

美, 힘 실리는 조기 금리인상론

7월 FOMC 회의록, 연준위원들 출구전략 합의 근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조기 금리인상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준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 7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이 출구전략에 대한 합의점에 근접했으며,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통화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요 지표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경제가 FOMC의 목표에 도달한다면 초저금리 정책 역시 앞당겨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평균적 노동자일수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연준이 노동시장의 추가적 안정을 원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은 지난 7월 30일 이를 동안의 FOMC를 마치고 공개한 성명에서 최근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참여율은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위원들은 정확한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FOMC 위원들은 또 첫 금리인상 이

후 보유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를 재투자하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epurchase facility)과 초과지급준비율(ERR: Excess Reserve Rate)을 사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22일 잭슨홀 연례 심포지엄에서 연설하는 재닛 옐런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옐런 의장이 고용시장에 대한 신중론을 고수한다면, 전문가들의 전망과 같이 연준의 금리인상은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FOMC 의사록에 대해 주식시장과 외환, 채권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뉴욕증시는 의사록 발표 직후 출렁였지만, 연준이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0.25%,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35% 각각 상승했다. 나스닥은 보험권에서 마감했다. 채권과 외환 투자자들은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배려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n@

Graphic NEWS

변리사 9년 연속 소득 1위

변리사가 지난해 소득이 가장 많았던 전문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

변리사 5억5900만원
지난해 전문직 평균연봉 1위

전문직 소득순위 톱5
2위 변호사 4억9000만원
3위 관세사 2억9600만원
4위 회계사 2억8500만원
5위 세무사 2억5400만원
* 위는 통계에서 제외

축사(1억1900만원), 강평사(69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상영 기자 syark@

퇴직 공직자 재취업 1200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퇴직자 1218명이 662개 공직 유관단체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국방·정보·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별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기관 간 업무이관, 또는 신분 전환을 통한 재취업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퇴직공직자 1218명
유관단체·사기업에 재취업

상임위원 퇴직 공직자 재취업 상위 5곳 * 1~4월 기준

국토교통부(202명)
기획재정부(175명)
정무위(170명)
산업통상자원부(130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127명)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숫자는 1586명으로 늘어난다. 박상영 기자 syark@

Life 목요일 19~25일

커버스토리 분양시장 ‘가을 大戰’

이상철 대표 ▶ 신창재 회장 ▶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구글에 인수되고 싶다면 '잇솔테스트'를 통과하라

구글의 래리 페이지 최고경영자(CEO)는 인수합병(M&A)을 결정할 때 항상 '잇솔 테스트'를 거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잇솔 테스트'는 어떤 기업을 사들이기 전에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이상 쓰는가" "일상적인 삶을 더 좋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처럼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투자은행(IB)의 조언에 의지하기보다 자사의 비전과 직관을 통해 M&A를 단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소개했다.

현금흐름이나 순이익 등의 지표가 복잡하게 나와있는 재무제표 대신에 페이지 CEO는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과 혜택에 초점을 맞춰 장기투자하고 있다고 NYT는 강조했다.

올 초 32억 달러(약 3조2600억원)에 사들였던 디지털온도계 업체 네스트도 페이지의 '잇솔 테스트'를 거쳐 인수가 결정됐다.

네스트의 현재 매출은 구글의 막대한 순이익에 비하면 물방울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구글은 '사물인터넷'이라는 잠재력이 풍부한 새 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잡게 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페이지의 '잇솔 테스트'처럼 IB의 조언을 찾지 않는 IT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 들어 1억 달러 이상 미국 IT M&A 가운데 IB 없이 치른 건수가 전체의

페이지 CEO의 M&A 전략

'하루에 한번 이상 쓰는가'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가' 인수할 서비스·제품에 질문

IB 조언보다 비전·직관 베틱

69%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의 27%에서 높아진 것이다.

애플이 30억 달러에 비츠일렉트릭을 사들이고 페이스북이 가상현실업체 오culus를 인수했을 때 모두 IB 은행가들의 도움 없이 이뤄졌다.

오라클은 지난 6월 무려 50억 달러에 마이크로시스템을 인수했을 때 역시 IB를 개입시키지 않았다.

로펌 웨일, 갓설&앤지스의 리처드 클리먼 파트너는 "은행가들은 재무평가와 협상에 능숙하다"며 "그러나 이들은 발전 초기 단계의 기술기업을 평가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해리스 구글 부사장은 "페이지 CEO는 M&A에서 매우 초기 단계 기업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며 "은행가들이 도움될 수 있으나 인수논의의 핵심에 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묵묵히... 이건호 '스토리 금융' 행보

(KB국민은행장)

최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외근이 잦아졌다. 임원들도 조차 이순(耳順)에 가까운 그의 행보를 따라가기 벅거울 정도다. 지점, 관계사 가리는 곳이 없다. 고객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한달음에 달려간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위를 앞두고 외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묵묵히 '스토리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요즘 이 행장이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이다. 관계형 금융을 통한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 노력이다.

실제 그는 광복절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이 행장은 사흘간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최근 마련된 '새경제 금융지원 3대 핵심 테마'중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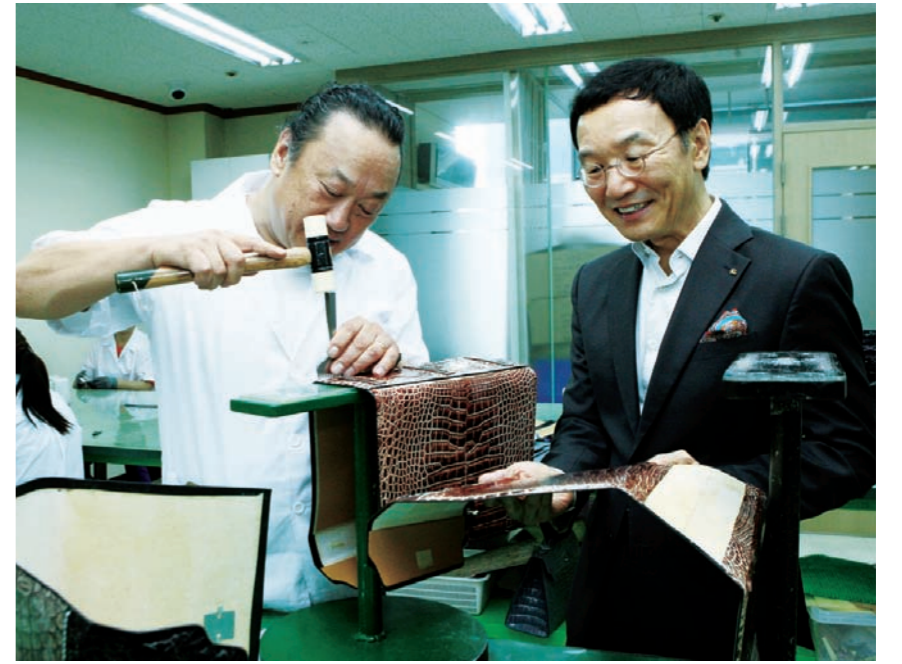
이 행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신흥엔젤, 얼케이아이테크, 휘권양행 등 혁신적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술금융,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투자 자본유치 등 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원진들과 중기 현장 방문
고객 목소리 찾아 한달음에
영업점 방문 직원 다독이고
회사 위한 쓴소리 귀기울여
위기극복 해법 격없는 소통

이 행장은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의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사고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을 독려하는 일도 살뜰히 챙기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행장은 지난달 서울지역 6개 지점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의 예로 사정을 경청했다.

예고없이 찾아온 수장의 방문에 모든 영업점 직원들 모두가 당황해 했지만 격을



이건호 행장(오른쪽)이 토종 브랜드 '호미'로 알려진 악어 가죽 핸드백 제조업체 휘권양행을 방문해 정준호 대표(왼쪽)로부터 제품 생산과정을 듣고 있다.

낮은 그의 소통 노력에 모두가 감동했다. 이 행장은 직접 시간 삼겹살을 직원들과 나눠먹으며 회사 발전을 위한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KB국민은행 한 직원은 "외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열의에 가득찬 이 행장을 본받아 임직원들도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이상철 대표 "저나트륨 김치로 글로벌 입맛 공략"

(대상FNF)



이상철(사진) 대상FNF 대표가 저나트륨 제품으로 김치 시장의 트렌드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상철 대표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트륨 함량을 50% 줄인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를 소개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상FNF는 국내 포장김치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증가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펼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치에 대한 저나트륨화 요구 등에 따라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2011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며 "4년 만에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아삭한 맛을 살린 김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일 4600mg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인 1일 2000mg보다 두 배 이상 더 많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률을 높여 국민의료비 증가를 부르는 주원인으로 꼽

국내 포장김치 1위 증가집
4년 개발 나트륨 절반 줄여
중기와 제조기술 공유 상생
세계 40여개국 수출 계획도

한다. 이 대표는 "고지방식과 고령화 추세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염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저나트륨 김치를 전 세계 40여개국에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상FNF는 중소기업에 김치 제조기술, 특히 유산균 등을 B2B로 판매하면서 저나트륨 김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는 자체 개발한 LS공법을 통해 아삭한 김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트륨 함량을

줄였다.

최정호 대상FNF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소장은 "김치가 발효되는 데 필요한 염분만을 남겨 나트륨 지수를 100g당 270mg까지 낮췄다"며 "상품 김치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 제품 평균 나트륨 지수는 100g당 760mg으로, 증가집 신제품의 3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단순히 소금과 양념을 덜 넣어 짠맛을 줄인 저염 제품이 아니라, 나트륨 함량 자체를 낮췄다"며 "100% 국내산 재료에 김치유산균 발효액과 식물성 유산균 발효액을 사용했고, 해조칼슘을 더해 저나트륨에서도 최상의 맛을 내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는 대형마트, 할인점, 정원아샵 등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1kg 기준 1만1000원이다. 대상FNF는 신제품 제조원가가 기존 제품보다 15% 가량 높지만 제품 홍보 차원에서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100원만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다람 기자 zing@

이웃과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 되시고,

유탄양행 소비자 상담실 (02-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 부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 원부원 '자율성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의심시) |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 합니다.

신용의 상징-비틀표 유탄양행 www.yuhan.co.kr | 광고심의필 : 1264-0200

부족한 비타민C는 유한 비타민C 1000mg으로 딱 채우세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즐거운 추석,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음식으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유한 비타민씨정 1000mg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세요!

효능·효과 ● 면역력 강화 ● 피로회복 ● 잇몸출혈·비출혈 ● 피부건강 ● 항산화작용

신제품 출시 600정

- 1정에 비타민C 1000mg을 함유한 순수 고함량 비타민C
- 명확한 효능·효과를 갖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
- 의약품으로 엄격한 제조과정과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
- 방습충과 뛰어난 PTP 포장으로 비타민C 산화 현상 방지

●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새로워졌습니다. ● 메가비타민C 용법에 좋습니다. ● 온가족이 함께 복용하실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 '점수→건수제' 25년 만에 손질...2018년부터 적용

보험료 폭탄 소액사고 잦은 운전자 수리비 폭탄

2회 사고 때 27~34% '쑥'

보험대신 자비처리 가능성

할인·할증제 변경에 따른 사례별 할증 보험료 변화
단위: 원

현행	개정	보험료 차이
1년 무사고 유지 시 (전년도 사고 경합자) (등급)할인 없음 (보험료)64만	1등급 할인 59만6000원	1등급 유리 4만4000원 감소
대인 사망사고 1건 4점(4등급)할증 81만6000원	2등급 할증 72만8000원	2등급 유리 8만8000원 인하
50만원 물적사고 1건 64만	1등급 할증 68만4000원	1등급 불리 4만4000원 인상
150만원 물적사고 1건 64만	2등급 할증 72만8000원	2등급 불리 8만8000원 인상
사고 2건 (40만원·300만원물적사고) 1점(1등급)할증 68만4000원	4등급 할증 81만6000원	3등급 불리 13만2000원 인상

※ 1등급 할증·할인은 보험료 6.8% 인상 또는 인하 효과

차보험 가입자 사고 현황
단위: 천대, %

	무사고	1건	2건	3건 이상	전체
차량대수	14,021	2,976	511	114	17,622
구성비	76.6	16.9	2.9	0.6	100
현행대비 할증보험료 증감률	-2.6	4.3	4.3	30.0	-

※ 2013년 1~12월 인기 대상 차량 계약 기준 사고 후 다음해 할증률만 비교
※ 할증보험료 증감률: 사고 후 다음해 보험료 할증분이 건수제 개선 시 현행 점수제 대비 얼마나 증감되는지 계산한 것

달라지는 후보험료 Q & A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이유?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사고 건수가 많은 운전자일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건수가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소액 물적사고의 기준을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물적사고 가운데 50만원 이하 사고가 △사고자 부담이 커지면 자비로 사고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나?
-한 번 사고를 낼 때 50만원 이하 물적 단독 사고는 1등급만 할증하고 50만원이 넘는 사고도 2등급 할증하는 것으로 기존 3등급에서 할증 수준을 줄였다. 소액 물적 사고자에 대한 할증분이 적어 보험료 때문에 자비로 사고 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소액사고 기준 50만원 왜?
A 142만건...전체 31.7% 차지
상향 땀 1등급할증 사고 ↑

Q 무사고자 인하 방법은?
A 할증보험료 2300억원 추정
무사고자 보험료 인하 혜택

142만건으로 전체 자동차 사고의 31.7%를 차지한다. 소액사고 기준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사고 위험보다 과소하게 1등급만 할증되는 사고의 규모가 증가해 사고 위험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 부과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가 퇴색되고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규모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사고 할인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1년간 무사고이면 즉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사고발생 유무를 보험료에 신속히 반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고 건수제를 시행 중인 외국도 1년간 무사고이면 할인하는 방식을 운영 중이다.

△제도 변경시 사고 유형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인적사고나 복합사고는 할증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반면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현재 할증이 되지 않는 일부 물적사고의 경우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제도 변경시 무사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것인지?
-그동안 실제 위험보다 할증 수준이 미흡했던 일부 사고자들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할증돼 그 효과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가된 할증보험료만큼 무사고자의 기본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kkk@

서울에 사는 45세 남성 A씨는 올해 보험료 64만원(물적사고 할증 기준 200만원 선택)을 납부한다. A씨는 1년 동안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점수제'로 인해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2015년 64만원으로 변경이 없게 된다. 하지만 '건수제'가 시행되는 2018년부터는 A씨의 등급이 1등급이 할인돼 보험료가 4만4000원 감소한 59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A씨가 올해 대인 사망 교통사고 1건만 일으켰다면 내년 보험료는 4등급이 오른 81만6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2018년부터는 2등급만 올라 72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A씨가 올해 50만원의 물적사고 1건 내지는 150만원의 물적사고 1건을 일으킨다면 올해 보험료는 64만원으로 같지만 2018년부터는 각각 1등급 오른 68만4000원을 2등급 오른 7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1등급 할인조건 3년서 1년으로 단축 무사고 운전자는 2.6% 줄어줄 듯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제가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의 보험료 산정도 크게 바뀐다. 전체 운전자의 80%를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2.6% 줄어드는 데 반해 연간 2회 이상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점수제'는 지난 1989년 인명사고가 많을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물적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개편하기로 한 '건수제'의 핵심 사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건수제'는 사고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1번 발생하면 3등급을 할증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또 가끔 발생한 사고와 소액 사고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기간 중 첫 사고는 2등급만 조정하고 이 중 50만원 이하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하기로 했다. 또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 항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 사고의 경우 지금은 최대 6등급까지 할증되지만 2018년부터는 2-3등급만 조

정된다. 지금은 할증 상한이 없지만 개편안에서는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할인제도가 변경되면서 3년 무사고이어야 1등급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을 1년간만 무사고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갱신) 전 1년간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자의 경우 평균 2.6% 보험료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건도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 비율은 79.6%에 달한다. 이에 비해 1건 사고자의 경우 점수제보다 할증료를 평균 4.3% 더 내게 되고 2건 사고자는 16.4%, 3건 이상은 30%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감독원 주장이다. 다만 이는 평균적 수치이고, 추가 부담 정도는 개별 유형에 따라 다르다.
최초 사고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 6.8%(1등급), 50만원 이상은 13.6%(2등급) 보험료가 오른다. 두 번째 사고부터 3등급씩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회는 27.2~34%, 3회는 47.6~54.4%, 4회부터는 61.2%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작년 한해 사고 1건을 낸 운전자 비율은 16.9%, 2건 사고자는 2.9%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건수제'로 변경된다면 연간 1-2건가량 사고를 일으키는 약 20%의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물적기준 50만원 이하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은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현 기자 nls0118@

손보사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정비업계도 "건수제 변경 수용못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25년 만에 점수제로 건수제로 바뀐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두고 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년 후에도 시행되는 것이어서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2년이라는 시기적 공백은 이 정책을 결정한 당국자가 인사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시기"라며 "막상 건수제를 시행할 때 바뀐 당국자가 제대로 시행할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건수제 시행 관련 여론을 수렴하면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2016년 도입을 2년 뒤로 미루는 등 제도 시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열 당시만 해도 사고 심도와 상관없이 사고 1건당 무조건 3등급을 할증하는 안이 논의된 것을 고려하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원안보다 많

이 후퇴했다. 제도 시행으로 무사고자에게 돌아갈 보험료 할인 폭도 당초 평균 4.0%에서 2.6%로 절반 가량 줄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말이 많았던 건수제다. 빠른 시행만이 업계의 시행작업을 줄일 수 있다"며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정비업계에서는 건수제 변경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완화된 금융원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의 차이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대진 자동차검사장비조합 상무는 "건수제 목적 자체가 80% 무사고자에게 혜택을 주고, 사고 다발자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보험료 분담원칙에 위배된다. 또 할증 부담 때문에 자기부담 처리가 늘어나 사실 정비업체에서 수리가 증가할 것이다. 정비업계는 물론 보험사, 소비자 모두 악순환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건국인의 힘 - ② 기본과 원칙

KU 건국대학교
KONKUK UNIV.

건국인, 기본이 답이다

노벨상 석학교수로 건국대와 함께한 8년
기초과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교육은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건국인의 힘입니다

"호기심과 열정으로 학문을 대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 로저 콘버그 건국대 석학교수
2006년 노벨화학상 수상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건국대 연구팀과 공동연구

탄탄한 대학·든든한 인재
건국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 서울캠퍼스 • 원서접수 : 2014년 9월 11일 (목) ~ 9월 15일 (월) • 문의 : 02)450-0007 http://enter.konkuk.ac.kr
글로벌캠퍼스 • 원서접수 : 2014년 9월 6일 (토) ~ 9월 18일 (목) • 문의 : 043)840-3000 http://enter.kku.ac.kr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 국민연금 같은 수준으로” 연금개선기획단, 집단 반발 우려 삭감액 보전 제안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 위원들에 따르면 기획단은 지난달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

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에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이번에 기획단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기획단은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 퇴직금의 절반 이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

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한 액수다. 이때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여권에서도 지난 19일 당·정·청협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공무원연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이와 관련,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깎는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한편 지난 19일 당·정·청협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되면서 당과 정부 중 어느 쪽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주도할지가 모호해진 상태다.

여당이 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깃발을 들었다가 공무원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탓인지 당정청협의의 안전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농식품 수출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농식품 수출 업무 협약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농식품 수출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매 사회적비용 2050년엔 '43조'

2012년 1.1%서 5.6%로 늘어
건보공단 건강검진 포함 검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인 11조7000억원에 달하고, 오는 2050년에는 43조2000억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 비중은 2012년 1.1%에서 2050년 5.6%로 5배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15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급증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의 '치매 노인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치매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보니, 지난해 11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매년 늘어나 2020년 15조2000억원(GDP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이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실질GDP(A)	1134.9조원	1471.3조원	1938.6조원	2384.7조원	2787.8조원
실질비용(B)	11.7조원	15.2조원	23.1조원	34.2조원	43.2조원
치매의 사회적 비용	1.0%	1.0%	1.2%	1.4%	1.5%
GDP대비 비율(B/A)	1.0%	1.0%	1.2%	1.4%	1.5%

* 출처: 보건복지부 '치매노인 실태 조사(2011)'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205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2014)에 의한 추정.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방탄 국회” 비난에도... 野 ‘탄압 대책위’ 구성

새정치 “신계륜 등 소환 협조
야방 기습 영장은 명백한 탄압”
일각선 ‘자성론’... 반대 입장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고심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의원들의 출두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강제구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새정치민주연합의 단독 소집으로 22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처리 대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방탄 국회’ 의혹이 사실인지가 판명나게 되면서 새정치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일괄 청구된 지난 19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 당시 자정을 앞두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탄 국회란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통 의원과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 5명이다.

검찰이 해당 의원들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강제구인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21일 하루밖에 안 남았다. 하루만 지나 회기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발동되면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임시회 단독 소집 요구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20일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당내 ‘야당탄압 저지대책위(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정, 해당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신계륜 의원 등은 검

영장 청구된 여야 의원들 혐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해운비리 연루 혐의
새누리당 조현통 의원	‘철피아’ 비리 연루 혐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6000만원 상당 금품수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6000만원 상당 금품수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1500만원 상당 금품수수)

찰소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현역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며 “검찰이 야밤에 기습작전을 퍼뜨려 전직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이 ‘방탄 국회’를 위한 것으로 판단,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관훈토론

회에서 야당을 겨냥해 “방탄국회 같은 것은 없어야 하고,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12시(0시)가 되기 1분 전에 8월 임시회 소집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이 걱정하시는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특권 내려 놓기를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방탄 국회를 연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세월호법에... 국정조사·국정감사 ‘안갯속’

유가족 반발에 일정 못 잡아
10월 정기국회서 실시될 수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제합했지만 야당 일각과 유가족들의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21일 오전까지도 향후 국회 일정이 ‘안갯속’에 놓여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올해 처음 도입된 한 분과국가의 실제 시행 여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6일부터 1차 국감에 돌입해야 하지만, 국감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유동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분리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국감법도 처리 난망이다.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 보좌진이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볼멘소리만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비서관은 “보좌진들끼리 모이면 국감 하는지 여부만 묻는다”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국세청 한 직원도 “국감 준비 등으로 여름 휴가도 못 갔는데 아직도 할지 안할지 모르니 답답할 따름”이라면서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기국회에선 국감시작 전날인 25일까지만 국감법이 통과되면 분리국감을 치르는데 문제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감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도 세월호특별법 처리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한 국감예정일 직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25일까지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감은 예년처럼 10월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보다 더 기억없는 건 세월호국정조사다. 국정조사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청문회를 남겨놓은 상황으로,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안전행

바이오·벤처도 농지취득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사용제한 대폭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농지 취득이 금지됐던 바이오·벤처기업 부설연구소도 앞으로는 농업연구 목적으로 할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가 허용되며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우량 농지가 모여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적용했던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민정 기자 puri21@

‘과세 이의신청’ 수용 국제청↓ 법원·심판원↑

세금 부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에 대해 국제청 보다 조세심판원·법원이 수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제청이 국회 기재위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인용(신청이 나 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조정)률은 2010년 29.1%에서 2011년 26.6%, 2012년 23.4%, 2013년 24.1%에서 높아졌으며, 올해 상반기는 22.7%로 집계됐다.

또 국제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의 인용률도 2010년 20.1%에서 2011년 23.7%로 높아졌지만 2012년 22.3%를 기점으로 2.6% 올래 상반기 18.9%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2010년 22.8%에서 2011년 23.6%, 2012년 26.1%, 2013년 31.0%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세금을 조정할 때는 2010년 12.3%,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희춘 기자 h9913@

경제의 정치논리화 가속... '리더십 부재' 가장 큰 문제

이투데이 주최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모색 토론회'

석간 경제신문 이투데이의 주최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중찬 국가경쟁전략연구원(NSI) 원장과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 최윤열 서강대 교수, 이해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최 원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재정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재정·금융의 양적 확대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지속하려면 구조적으로 국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발제자 최중찬 국가경쟁전략연구원장

이를 위해 최 원장은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 공감대를 우선 마련한 후 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준수를 낮춘 규제 폐지 등은 물론 국내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골프장 세금 인하, 카지노 등 관광시설 확충, 의료 관광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저소득층 사회보장 확대 △공공부문 혁신 △도심재개발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 △건전재정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윤열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거쳐 1970-80년대식 양적성장 중심에서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의 양극화가 심화되

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도 별로 개선된 게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남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훈 전 최고위원은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주머니가 비어 울 돈이 없으니 경기가 어렵다는 진단은 맞지만 처방은 엉뚱해, 내수집체를 살릴 처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여기서 고용된 인원이 88%인데 사내유보금 과세하고 정규직 임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주최한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대토론회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최중찬 국가경쟁전략연구원장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기자 myfixer@

금을 올려버리면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주머니가 빈, 내수집체 근본 원인이 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를 두고도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줄어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오히려 문제인데, 부동산 활성화를 명목으로 집값 올리는 정책을 편다면 정상 아니냐"라면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주택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종학 의원 역시 경제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선분양제도를 안 건드리면서 쌍둥이 규제인 분양가상한제만 없애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다. 그러나 양극화를 데이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재정을 제대로 분류할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학세정을 하긴 어렵다"고 국제행정 선진화 주장도 폈다.

토론회에선 증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중찬 원장과 이장규 부총장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내리는 추세인 만큼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고, 홍종학 의원은 "기업들의 실패세율이 중소기업, 재벌, 중견기업 순이다. 재벌이 중견기업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게 타당하냐"라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최윤열 교수는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안내는 만큼 이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장규 부총장은 대통령을 향해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발취를 주문했다.

그는 "경제의 정치논리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의 체질 개선 없이는 올해를 정점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며 "타이밍이 중요한 각종 정책들이 국회만 가면 블랙홀에 빠지는 만큼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를 직접 만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을 더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패널 참가자 주요 발언

정책 생명은 타이밍... 법안통과 지연 문제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은 20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문제의 정치논리화가 가속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부총장은 이날 서울 명동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경제문제의 정치논리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경제의 체질개선 없이는 2014년을 피크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장은 현재 한국 경제 문제를 '리더십 부재'라고 진단. "오일쇼크를 다시 겪는 것도 아니고 미국발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경제가 늪으로 빠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속에 느끼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숫자와 관계없이 증폭하는 이유는 심각한 병이 있기 때문이다. 병의 이유는 '리더십 부재 증후군'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타이밍이 제대로 맞춰진 정책을 펼칠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며 그 원인으로 국회의 법안 통과 지연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부총장은 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력을 떨치려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필호 기자 beellebum@

경제규모 확대보다 삶의 질 향상에 초점

최윤열 서강대 교수

최윤열 서강대 교수는 20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선다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경제규모 확대가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전 199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정도였을 때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각국 진입을 꾀는 국민이 많았지만 2만달러가 넘어선 후부터는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언급하는 국민이 다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1950-60년대와 비교해 경제적인 수준은 크게 개선됐지만 이에 별로 만족하는 국민이 없다"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초점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발생



해 전체 국민이 잘살게 됐지만 이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기업 간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진단은 맞는데... 내수침체 처방 못내

이해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새누리당 이해훈 전 최고위원은 20일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일본식 불황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질개선과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진단은 맞는데 처방은 엉뚱하다. 내수집체 실행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쓴 소리를 냈다.

먼저 경제팀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백조의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이 다 합해야 몇 개 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9988이라는 업체수로 보면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원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내유보금 정책에서도 해당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기업 몇 개 재벌이 사내유보금 왜 생겼나 이것부터 짚어야 한다"며 "메출액 대



비영업업의 비율은 장사될 때와 안 될 때 왔다갔다 하는 게 정상이다. 재벌기업은 정상적인 사이클을 그린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정하게 5.5%에 묶여 겨우 연명만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윤필호 기자 beellebum@

양극화 데이터 없어... 과학적 통제 부족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0일 "경제는 과학인데 한국경제를 과학적으로 통제하기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다. 그러나 양극화를 데이터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그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의 장점은 이론보다는 데이터로 전 세계 자료가 축적 있지만 불행히도 한국 자료는 없다"면서 특히 국제행정의 선진화를 통한 정확한 경제 상황 파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제정은 현재 국민의 상가임대소득이 얼마인지, 주택임대소득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한다"면서 "재벌들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얼마인지, 재정에서 콘크리트(토목사업)에 얼마를 썼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대한민국 재정을 제대로 분류할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학세정을 하긴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운영이 감에 의존하고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이모저모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정부 규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A to Z' 참석자들 토론회 후론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A부터 Z까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던진 화두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연사들과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지정된 30분간의 시간을 넘겨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경한 고려대 학생은 실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의 '직격탄'인 것 같아 주목했다. 그는 "제가 가족은 과거에는 종종 외식을 하는 등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충 받아들인 집산 이후에는 이자 갚느라 외식을 잘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저희 집처럼 하우스푸어가 양산됐다 결국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은 소비여력을 끌어먹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우동식 서경대 학생은 "규제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규제를 더 양산할까 우려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해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과도한 규제보다 오히려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며 "규제완화 노력 못지않게 정부가 의사결정을 신속히 함으로써 기업이 맞닥뜨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화국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회에 대해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이 최근 영화 '명량'이 큰 인기를 끄는 원인 중 하나로 소통을 위한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한 발언이 인상 깊었다"며 "소통 부족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마지막 할인폰” 불법보조금 다시 활개

단통법 시행 한달여 앞두고 이통사 대리점 가입자 쟁탈전 최대 5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불법 보조금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특정 이통사가 스마트폰을 통해 출고가 94만5000원인 삼성 갤럭시S5 LTE-A를 40만9800원에 팔고 있다. 출고가가 89만9800원인 LG G3도 42만4000원까지 내렸다. 보조금이 50

만원 내외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인기 단말기에 20만~26만원이 불법으로 추가됐다. 불법 보조금은 지난 주말인 16일 스팟성으로 시작해 21일 오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영업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 우선 26만원을 할인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페이백 형태로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과 방통위의 보조금 추가제제가 얼마 남지 않아 급히 내려온 스팟 정책”이라며 “당초에는 주말만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평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 보조금에 대해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반기고 있지만, 업계에선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잠잠했던 가입자 쟁탈전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이통사의 추가제제를 다음달 시행할 전망”이라며 “번호이동 시장에 2차 방하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 무리를 해서 보조금을 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금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한다. 더불어 지난 5월29일 회의 때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금지(7일) 시기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회사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을 삭감한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앞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지목했으나, LG유플러스가 이에 반발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수시 감사받아라’ 강제 서약서 공정위, 락앤락 조사 착수

납품업체 하도급법 위반 혐의 회사측 “윤리경영 취지일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갑의 횡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방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또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 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이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한 협력사 관계자는 “서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인데도 락앤락과 거래하려면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며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락앤락은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서약서를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 업체들의 실질적 피해를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락앤락측은 최근 윤리경영을 선포하면서 좋은 취지로 추진한 일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락앤락 관계자는 “최근 락앤락 일부 직원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서약서를 만들었는데, 납품업체들이 서약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갑의 횡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조사에 착수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증선위, 동양·동양레저 檢고발

동양과 동양레저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동양과 동양레저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등기임원과 전 대표이사들의 기존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와 총당부채를 누락하고 종속기업 장기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레저는 자본법 적용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석을 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승우 기자 sysy@



싱크홀 또 있다 최근 싱크홀과 동공 등이 잇달아 발견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사거리 인근 지하철 9호선 920공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터널 굴착 장비인 실드 TBM(Shield Tunnel Boring Machine)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 처지 다르네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지급과 관련, 기아차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2개월 동안 15일 이상 일해야 하는 근무 조건이 없다. 반면 현대차는 이 같은 조건이 있어 사측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 아무

정기상여금 지급 근무조건 달라 법원 판결 엇갈릴 가능성도 기아차 미묘한 입장차 파업 결정 관련 조건이 없는 한국지엠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한국지엠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의 경우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 전례를 뒤따를 수 있지만 현대차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를 미묘하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상과 관련해 신청한 노동쟁의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당시 노사 간 격한 주장의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이후 기아차 노조는 2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2일 하루 1조(오전 7시~오후 3시 40분 근무)와 2조(오후 3시 40분~익일 오전 1시 40분 근무)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반면 중노위는 현대차가 신청한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추가 교섭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 성과급 등 임금교섭의 본질적 안건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21일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다시 결정을 내린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모두 통상임금 확대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가장 핵심 사안이지만 중노위는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들은 중노위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리원어린이집 “시니어인턴 모집입니다”

여성직장 재탐색

급식조리사 만 60세 이상 가능

리원어린이집에서 단체급식조리사를 모집한다. 직무 내용은 어린이집 급식조리 업무이다. 이곳은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 참여업체로 만 60세 이상만 지원 가능하다. 시니어인턴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한 노인에게 해당 기업에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무지는 서울 중구 만리동에 위치하고

모집요강	
모집직종	급식조리사
직무내용	어린이집 단체급식 조리
접수마감일	재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3개월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장년층, 인건부주자

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다.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복리후생으로 퇴직금이 제공된다.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자격증이나 경력,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지원 희망자는 시니어인턴 운영기관 은곡직업전문학교에 연락(02-952-1193)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명사초청 특별강좌 서비스 제3편]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百年之大計 더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초청 세무·회계·경영 실무강좌 무료 공개!

ERP, 그룹웨어 등 경영정보화 솔루션을 보급하여 우리나라 기업정보화를 선도해온 더존이 세무, 회계 및 경영관리 분야의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무이론지식을 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신 IT기반으로 **실무강좌를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합니다. 더존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명사초청 세무·회계·경영 실무강좌 무료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법인세 실무, 부가가치세 실무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회계실무”와 “4대보험실무”를 더존 홈페이지에서 조건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실무 (8시간 14차시)

4대 보험의 업무처리와 신고실무 전반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실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내용을 업무 단계별 사례 위주로 쉽고 상세하게 풀어낸 강좌

[강사] 대한민국 최고의 세무사 겸 공인노무사! **신현범** 세무사

기초 회계 실무 (20시간 38차시)

회계와 부가의 개념부터 재무제표와 회계장부 작성, 분석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을 핵심 이론과 함께 실무 사례도 곁들여 초급자도 정갈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강사] 기업회계의 세무 실무 분야 명강사! **김검순**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핵심강좌: 5시간 19차시) (종합강좌: 16시간 49차시)

2014년 개정 세법부터 부가세 이론과 실무 핵심 그리고, 담당자가 꼭 참고 넘어가야 할 신고/납부에 관한 핵심 체크포인트로 심도 있게 구성

[강사] 부가세 분야 최고 명성의 스타 강사! **한장석** 세무사

법인세 신고 실무 (11시간 34차시)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상의 유의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요령 등 신고 실무로 일치게 구성했으며 실무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을 사례와 함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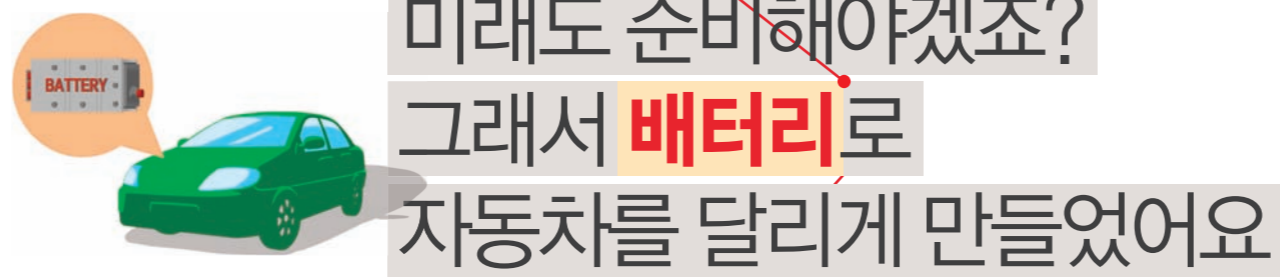
[강사] 역대 최고 명성의 법인세 실무 전문가! **배택현** 세무사

※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각 강좌는 주제별로 동영상 파일이 세분화 되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재는 PDF파일로 무료 제공하므로 프린트해서 볼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공합니다.

www.duzon.co.kr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그걸 우리가 개발하죠
15개국 22광구에서



과거부터 현재,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 혁신하다 > **SK** 이노베이션

김정태 '원뱅크' 뚝심, 금융당국에 제동?

〈하나+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 동의 못받아 금융당국 부정적 입장 신제윤 위원장 "통합 논의는 노조 합의가 전제돼야" 성사뎀 자산 1위...금융산업 영향 커 결정 쉽지 않아



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자산은 각각 194조 원, 146조원으로 양 은행이 합치면 340조 원에 달한다. 현재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국민은행과 50조원 가까운 격차 보이는 것이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노조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병 승인과 관련한 신청 자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정태(사진) 하나금융 회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언급한 지 한 달여 만에 양행이 조기통합에 공식합의하고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표면적으로 김 회장 특유의 뚝심을 바탕으로 통합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과 은행산업 경영건전성 문제 등으로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기까지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통합계약서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달 중순 금융위원회에 통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양행의 합병이 금융위 인가를 받으면 사실상 합병 절차가 완료되는 셈이다.

이에 김 회장의 속전속결 전략과 맞물리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현재 조기통합의 전제조건인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경영진은 조기 통합과정에 노조를 배제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정

지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약속은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통합 논의는 노조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무엇보다 양행이 조기 통합 결과 자산 규모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서는 만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판단이 단시간 내에 결정되기 쉽지 않

실제로 하나금융이 지난 2012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2010년 11월 인수를 추진한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인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데에만 3개월이나 소요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사 협상은 완전한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노사가 합의를 전제로 조기통합을 추진할 때 합병 인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카드사 순익 1조원대 회복

상반기 1조1529억...18%↑ 정보유출 등 충격 벗어나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회사명	2013년상반기	2014년상반기
신한	3744	3177
삼성	1497	2999
현대	833	1370
KB국민	2036	1894
롯데	883	1003
비씨	739	740

올 상반기 전업계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1년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악재가 많았으나 순이익에는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조15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97억원)에 비해 17.7%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1조5035억원)에 비해 35% 줄며 1조원대가 붕괴됐다.

신한카드의 상반기 순이익이 3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3744억원에 비해 15.1% 감소했다. 다만, 전년도 비자카드 지분 매각 이익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이익 417억원을 제외하면 이 기간의 순이익은 1.1% 증가한 셈이다.

삼성카드는 올 상반기 삼성화재와 제일모직 지분 매각 이익 1600억원이 반영되며 순이익이 1497억원에서 2999억원으로 100.3% 급증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4.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카드도 833억원에서 1370억원

으로 64.5% 늘었다. 금융사업의 호조와 지난해 7월 카드상품을 단순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이 현대카드 측의 설명이다.

KB국민카드는 이 기간에 2036억원에서 1894억원으로 순이익이 7.0% 줄었고, 롯데카드는 883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13.6% 증가했다. 국민카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국민행복카드 매각 이익(235억원) 등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 1월 정보유출 사태에 휘말렸던 두 카드사의 상반기 실적도 악화되지 않은 것은 영업점지에 따른 영업비용 등 지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하반기 그 여파가 가시화될 것으로 회사들은 내다봤다.

또 BC카드는 이 기간에 739억원에서 740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지난해 4월 출범한 우리카드는 올 상반기 순이익 346억원을 기록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삼성카드 ARS 인증 첫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삼성카드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에 따라 23일 카드업계 최초로 ARS 인증방식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 3월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이 폐지됐지만 카드사들은 관행적으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왔다.

ARS 인증은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카드결제시 ARS 전화 연결 후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30만원 이상 결제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또 앱카드 가입시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카드 인증 외에도 ARS 인증 단계를 추가해 본인 인증 및 보안 안전성을 높였다.

한편, 삼성카드는 오는 9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갤럭시S5) 지문 인식 기능을 활용한 앱카드 결제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앱카드 결제 보안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에 따라 대체 인증 수단으로 ARS 인증을 카드업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홈쇼핑 결제 비번 누르면 끝... 신한은행 'TV머니'

선불식 TV 전용결제 서비스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IPTV의 VOD와 홈쇼핑 결제에 사용되는 'TV머니' 서비스를 출시했다.

TV머니는 고객이 TV를 시청하며 채널을 통해 바로 결제 할 수 있는 선불식 TV 전용결제 서비스다. IPTV에서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와 홈쇼핑 상품 등을 비밀번

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 할 수 있다.

올레tv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셋톱박스에 현금카드를 꽂아 충전하거나 TV머니 전용결제에 직접이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TV머니와 더불어 올레tv에서 은행의 현금카드를 이용 계좌조회와 이체 및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TV뱅크 서비스(채널 785번)도 이날 내

시할 예정이다. IPTV의 셋톱박스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TV머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프로세스를 강화해 충전시 본인명의 현금카드도 인증과 셋톱박스 IP 인증까지 동시 수행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현대캐피탈, HK저축은행서 손뎀다

지분 19.99% 전량 매각

현대캐피탈이 2대 주주였던 HK저축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8일 HK저축은행 지분 19.99%에 대해 1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지분율 78.38%)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2006년 MBK파트너스가 H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고 현재 지분율은 19.99%로 HK저축은행의 2대 주주다.

이번 지분 정리는 HK저축은행이 9월 계열사인 부산HK저축은행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현대캐피탈이 보유주식 499만여주를 전량 매수 청구하면 약 25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이 2006년과 2007년의 유상증

자에 각각 371억원, 69억원을 넣은 점을 감안하면 19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캐피탈이 HK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저축은행 임원이 좋지 않다는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8월 HK저축은행에 파견을 보내 근무하도록 한 CFO(최고재무책임자)와 CRO(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등 임원 2명을 MBK파트너스와 경영 방침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귀 조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편, HK저축은행을 비롯해 SBI·OK·웰컴·한국투자 등 저축은행 5곳은 올해 하반기 안에 경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계열사를 대거 합병할 예정이다. HK와 부산 HK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9월 22일 최종 합병한다. 박엘리 기자 ellee@

미디어통

MEDIA TONG

www.mediatong.com

포트폴리오인재관
이제 스킬과 이력서, 포트폴리오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기업PR관
미디어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방송가맛집
우리회사, 내가 꿈꾸는 직장 맛집을 소개합니다.

교육기관 인재정보
우리 교육기관의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이제 미디어통을 스마트폰에서 만나세요! 미디어통 앱 다운로드

고객센터 02)783-1580 | helpdesk@mediatong.com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주)미디어네이티브

전자업계 간판 CEO들 '베를린으로'

내달 10일부터 'IFA 2014'

삼성 윤부근 사장 기조연설자로
신종균 사장 '갤노트4' 공개행사
구본준 LG 부회장도 직접 참석

국내 전자업계 간판 최고경영자들(CEO)들이 독일 베를린에 총 집결한다.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인 IFA 2014에 참석해 세계 가전 시장 트렌드와 업체 간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4'에 삼성전자 윤부근 소사장, 신종균 사장, 신종균 IT·모바일(IM) 부문 사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윤 사장은 5일 기조연설자로 나서 '미래 가치를 제시한다(Bringing Your Future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Home)라는 주제로 스마트홈 시대에 대한 삼성전자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사장의 IFA 행사 기조연설은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신종균 사장은 IFA 2014 개최에 앞서 열리는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에 참석해 '갤럭시노트4'를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자업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애플의 '아이폰6'과 함께 갤럭시노트4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삼성전자에서는 윤 사장과 신 사장 이외에 임영훈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김현석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이 IFA 2014로 발길을 향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사 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IFA 2013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가전사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 부회장의 대외 활

동이 활발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행사 참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LG전자에서는 구본준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출시한 전작 스마트폰 'G3'를 통해 부진을 딛고 빠른 성장세를 과시하고 있다. 구 부회장은 IFA는 물론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 유명 전시회는 대부분 참석한다.

LG전자가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올해도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LG전자 브랜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업계의 시각이다.

LG전자가 올해 IFA에서 지난 6월 구글 개발자대회(I/O)에서 공개된 'G워치' 후속 모델인 'G워치2'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구 부회장과 함께 조성진 HA사업부 사장, 하현희 HE사업부 사장이 IFA 행사장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동생' 기아차 "내가 더 잘나가"

7월 국내 생산량 16만8574대...현대차 앞지르고 1위

북미 판매량 6.7% 성장 등 해외시장서도 '쾌속질주'

기아자동차의 국내공장 생산량이 지난달 현대자동차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의 소하리·화성·광주공장 등에서 모두 16만8574대를 만들어 국내서 생산규모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7월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16만5473대를 생산해 기아차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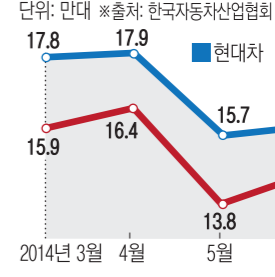
기아차의 국내 생산량이 월 기준 현대차를 앞지른 것은 지난 2011년 2월(기아차 11만571대, 현대차 10만7348대) 이후 3년 5개월만이다. 당시에는 기아차가 2010년 9월 'K5'를 처음 선보인 데 이어, 2011년 1월에는 '신형 모닝'을 내놓으면서 현대차의 생산량을 앞질렀다.

두 회사는 성장세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아차의 7월 국내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36.1% 성장했다. 반면 현대차는 같은 기간 8.3%에 성장에 그쳤다. 1-7월 누적 생산량 기준으로 기아차는 12.6% 성장해 현대차(6.1%)의 두 배에 달했다.

기아차의 국내 생산량이 현대차를 뛰어넘은 것은 해외 성장세가 현대차를 앞서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아차는 7월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6.7% 성장했지만 현대차는 1.5% 성장에 그쳤다. 기아차의 7월 해외 수출량은 12만1861대로 지난해 7월보다

현대기아차의 생산 추이



33.1% 성장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1.9% 성장한 9만6052대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특히 현대차가 최근 '신형 제네시스와 LP쏘나타'를 잇따라 출시한 것을 고려하면 기아차에 생산규모가 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면서 증산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국내 생산물량 증가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현대차 부사장은 지난달 2분기 실적발표에서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생산하는 울산5공장의 증산을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공장 규모 차이로 기아차와 현대차의 국내 생산물량이 역전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아차는 미국, 슬로바키아,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다. 현대차는 미국, 체코, 터키, 인도, 중국, 브라질 등 기아차보다 더 많은 해외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한명호 전 LG하우시스 사장 경쟁사 한화L&C 초대 대표에

건재전문기업으로 나선 한화L&C가 경쟁사 LG하우시스의 옛 수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전격 영입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L&C는 지난 12일 한명호(사진) 전 LG하우시스 대표이사 사장을 초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앞으로 한 대표는 지난 7월 건재사업부(한화L&C)이 물적 분할한 후 신설된 한화L&C의 수장으로서 건축자재사업을 전담 추진할 방침이다.

한 사장은 지난 2009년 LG화학으로부터 분리된 LG하우시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가능성 로이(Low-E) 코팅유리 생산, 미국 엔지니어링 스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 바 있다.

한화L&C는 이번 한 사장의 영입을 통해 건축자재기업의 시장 지위를 다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화L&C는 최근 통합브랜드 리제(Lize)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며, 향후 4년간 약 1500억원의 시설·신사업 투자를 진행,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선임 하루 뒤인 지난 13일 서울시 부강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L&C 관계자는 "(한 대표는)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삼성전자, 원산지 규정 위반

미국서 24억원 합의금 납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230만 달러(약 23억5000만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연방조달청(GSA)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에게 고의로 틀린 원산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TAA)에 따라 정부 조달 물품으로 미국 내 생산품이거나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공식 판매업자에게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또는 멕시코산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합의에 삼성 미국 법인에 대한 혐의는 풀렸지만 이 사건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태성 기자 tsmim@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 개관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웨스트 타워'의 개관으로 총 1022 객실의 대형 호텔로 재탄생하게 됐다. 지난 20일 다음달 1일 공식 개관을 앞두고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웨스트 타워 앞에서 개관식을 진행했다. 조현아 김호태네트웍스 대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배국환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왼쪽 세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진그룹

박용만 상의 회장 1년, 소통 또 소통...

정·재계 오가며 다리 역할
'한중포럼' 좋은 평가 받아
노사갈등 해결 등 과제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쪽고 '소통'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취임 후 첫 행보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는 대한상의 지휘봉을 잡은 뒤 첫 공식일정으로 지역을 도는 것을 시작으로 누구보다 바쁜 1년을 보냈다.

박용만 회장이 21일 취임 1년을 맞았다. 박 회장은 지난 19일 임직원들에게 케이크와 메모가 적힌 카드를 선물 받는 것으로 축하 행사를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대한상의 1년'은 정치권과 정부, 재계와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경제5단체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처음 이끌었다. 재계와 국회의 기업 규제 법안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박 회장의 의미 있는 화동 주선이었다.

지난달에는 한·중 양국 정상이 모인 경제정상회담 포럼을 열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한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합동토론회'도 개최하며 폭넓은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경기 현황이나 노동 현안을 보면 앞으로 그가 풀어야 할 숙제는 더 많다. 올 여름 산업계는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곳곳에서 파업이 벌어지며 기업과 노동자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회장은 경영계를 대표해 최근 11개월만에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며 노사갈등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에 그쳐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내 경제와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 e북 '갤탭4 누크', 아마존 '킨들'과 정면승부

삼성전자가 반즈앤노블과 합작한 '갤럭시 탭4 누크'로 아마존 '킨들'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서점인 미국 반즈앤노블과 공동 제작한 태블릿PC 갤럭시 탭4 누크를 공개했다. 갤럭시 탭4 누크에는 반즈앤노블이 보유한 300만권 이상의 서적에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누크'가 장착됐다. 누

크는 반즈앤노블의 전자책 브랜드다. 갤럭시 탭4 누크는 7인치 1280x768 해상도 화면과 8GB 저장공간이 적용, 삼성전자의 보급형 태블릿인 갤럭시 탭4와 동일한 사양을 갖췄다. 전자책 독자 특화환경을 제공하는 누크 UX(사용자환경)가 적용돼 사용 편의성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또 한글 안드로이드 4.4 킷캣을 지원하며 전자책 라이브러리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개인별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탑재됐다. 이 밖에 갤럭시 탭4처럼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활용 가능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 추가 저장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제품에는 구글의 앱 스토어는 물론 반즈앤노블이 운영하는 '누크' 앱 스토어도 탑재됐다. 판매가격은 179달러(약 18만원)로 책정됐다. 김지영 기자 gujy@

유통가도 '명량 열풍'

이마트 '이순신 존' 등 관련 상품·이벤트 붐물

최근 관객수 1500만을 돌파하는 등 국내 개봉 영화의 모든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명량'의 인기로 유통가 가 틈새 특수를 누리고 있다. 영화의 인기로 식을 줄 모르면서 대형마트 등도 '충무공 이순신 존'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하는 등 관련 마케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파크백화점 키덜트 전문관 '도이안해비'는 명량 개봉이후 거북선과 관옥선 목재모형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270.5%) 가량 늘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제품도 매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한 단위농협에서 출시한 자체 브랜드 '이순신 장군 쌀' 판매량이 20% 넘게 증가했다. 전남과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해양관광지 마케팅이 지방 농산물 판매로 변진 것.

갑작스런 이순신 특수에 대형마트들도 팔을 걷어 부쳤다.

이마트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 전국 매장에 '이순신 존'을 만들고 불꽃관구 '옥스포드 장군 이순신 시리즈' 할인행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가장 인기가 높은 '수호신 거북선'을 비롯해 '거북자 공격', '장군성 대결투', '관옥선 출격' 등 총 8종을 최대 2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추석 할인행사 이름을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가격 인하된 제주상품으로 차린 '실속 차례상'을 선보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아에 '임진년 물가대접'으로 이름 붙였다. 주요 제주상품을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20%가량 싸게 팔면서 이순신 장군 복장을 한 모델을 내세웠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왜적을 잡은 것처럼 추석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교황 효과... 기아차 '쏘울' 판매량 급증

의전차량 사용 후 계약 62% 늘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의전차량으로 사용된 '쏘울'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아차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나온 11일부터 교황이 출국한 다음날인 19일까지 영업일수 6일간 쏘울의 하루 평균 계약대수는 32.5대로 지난달 하루평균 계약량 20대보다 62.5% 증가했다.

배기량 1600cc급의 소형 박스카인 쏘울은 국내에서 1~7월간 모두 2740대가 판매

됐다. 교황이 출국한 18일에는 52대의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쏘울 계약대수는 휴가 시즌이었던 1일부터 8일까지 영업일수 6일간 하루 평균 18.3대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교황 방문 주간이었던 11일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미 이달 들어 305대의 계약실적을 올린 추세대로라면 올해 들어 월 평균 판매량 391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교황이 쏘울에 몸을 실은 모습이 TV 화면과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간접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가로수길 그 옷 모바일로... 네이버 쇼핑 'O2O'

(online to off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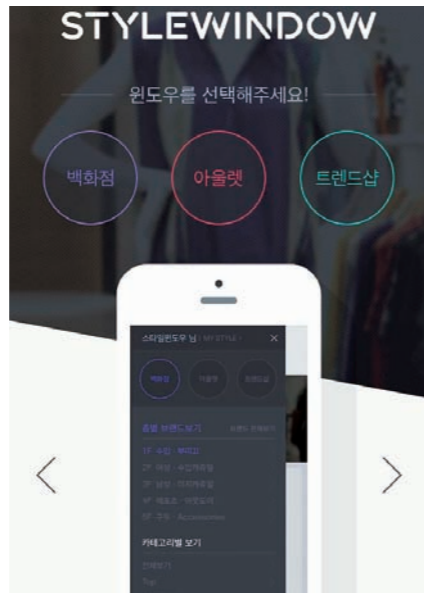
오프라인 상품 정보 온라인 제공 '스타일 윈도우' 오픈
입점비용·모바일 쇼핑결제 등 추가 수익모델 확보 전망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모바일 쇼핑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허무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 잡기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인 기반 SNS 밴드에 쇼핑 서비스 '밴드 패션'을 선보인 데 이어, 오프라인 매장의 새로운 상품 정보 등을 모바일웹을 통해 제공하는 '스타일 윈도우'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

'스타일 윈도우'는 백화점과 아울렛에 입점해 있는 전문 브랜드뿐 아니라 홈데, 가로수길, 이태원 등의 트렌드숍에서 제공하는 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거리, 시간 등의 이유로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은 실제 상점에서 제공하는 신상품, 할인정보 등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접할 수 있다. 현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미아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그리고 100여개가 넘는 트렌드숍의 쇼핑 정보를 무료 입점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스타일 윈도우'를 사진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앞으로 결제까지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 또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도 추가해, '스타일 윈도우'를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네이버가 O2O 서비스로 발전시킬 쇼핑 분야는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면서 모바일 마케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1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9% 증가했다. 모바일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14.6%에서 30.2%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홈데, 가로수길, 이태원 등에 위치한 소규모 트렌드숍의 경우 온라인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모바일 마케팅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이에 '스타일 윈도우'는 이들 업체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에서도 '스타일 윈도우'의 입점 비용이나 모바일 쇼핑결제 등 일부 비용을 이익으로 확보하는 수익모델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스타일 윈도우'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O2O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최근 O2O 사업강화를 선언한 다음-카카오 연합과의 각축전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핵심인력 중소기업서 오래 일하게... 성과보장기금 '내일채움공제' 출범

5년 근무엔 적립금... 이직률 낮춰

리 2.68% 이자 143만원을 합쳐 218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정부의 '성과보장기금' 사업이 본격 출범한다. 이직률이 심한 중소기업 핵심인력들의 장기 재직을 기업과 인력이 매칭 적합한 기금을 통해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문제가 절실한 만큼, 앞으로 연간 1600여개 기업들이 성과보장기금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장기금(내일채움공제)'을 출범시키고, 서울 코엑스에서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장기금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시 적립 금액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보상 지급함으로써 재직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하며,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000만원 이상이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한다. 5년 후 핵심인력은 적립금 2040만원과 연 복

중기청은 중소기업 부담이 있는 만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과보장기금 적립 금액 전액에 대해 손비를 인정하고, 추가로 적립금의 25%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적립금의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셈이다.

중기청은 이번 성과보장기금 도입으로 핵심인력에게 실질적인 금전 보상이 자긍심을 부여하는 심리적 효과가 결합돼 장기재직을 효과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윤인규 팀장은 "연간 1600여개 기업이 성과보장기금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목표를 두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슷한 구조로 기존에 진행해오던 장기재직 지원프로그램 '희망엔지니어적급'과의 차별화는 문제로 지적된다. 희망엔지니어적급은 대상이 R&D인력이라는 점과 민간은행 참여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성과보장기금과 다를 뿐 나머지는 비슷하다. 이에 대해 중기청 나성화 기업혁신지원과장은 "향후 희망엔지니어적급의 개편을 통해 성과보장기금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thec98@



LG U+ 이마트서 '홈보이' 시연

LG유플러스는 전국 70곳의 이마트 매장 문화센터에 홈보이 시연존을 만들고, 홈보이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 강의를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홈보이는 전화와 오디오, TV, 전자책, 보안서비스 등의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올인원 가전이다. 80여개의 실시간 채널과 VOD를 제공하는 U+HDTV, 320만여곡의 음원이 수록된 Mnet, 초·중·고 EBS강의를 패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EBS 홈스쿨, 1만여권의 전자책 등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고객과 카톡... 카카오, 中企 위한 '엘로아이디'

미니홈 만들어 업체정보 안내... 개설비 무료

영 기간을 거쳐며 효과를 입증한 '엘로아이디'는 쇼핑물, 기관,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파트너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였다.

카카오가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 '엘로아이디'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엘로아이디'를 통해 카카오톡에서 고객과 친구를 맺고 채팅방에서 실시간 11 상담은 물론 각종 소식을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개월간 '비즈프로필'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며 효과를 입증한 '엘로아이디'는 쇼핑물, 기관,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파트너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였다.

업체 정보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미니홈' 페이지를 신설하고, 기존에는 유료였던 엘로아이디 개설 비용을 무료로 전환하는 등 사업자 입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엘로아이디'는 시범 운영기간동안 4000여 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김태현 기자 119@

CJ헬로비전, 무료 게임광고 플랫폼 론칭

앨리스쇼크와 공동개발 '크로스쇼크'

탕 컨설팅, 클라우드 서버 지원 및 관리, 지속적 게임 품질관리 등 모바일게임 개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CJ헬로비전은 스타트업 '앨리스쇼크'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모바일 게임광고 플랫폼 '크로스쇼크'를 상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로스쇼크는 소규모 게임개발자들이 무상으로 자신의 게임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 서비스다. 중소기업들이 서로 자사 게임 내에 타사 게임 광고를 무료로 실어주고, 함께 홍보효과를 보는 이른바 '뽕맛이' 형태의 크로스 프로모션이다. 예컨대 A게임 속에 B게임의 광고를 넣고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B게임에 A게임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크로스쇼크는 CJ헬로비전 '중소기업 서포터센터'에서 운영, 중소기업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서포터센터는 마케팅

이상용 CJ헬로비전 운영총괄은 "크로스쇼크 서비스는 다수의 게임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네트워크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개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품을 알리고 유저를 확보하는데 강력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모바일 게임 분야에 최적화 된 비전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소규모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로스쇼크 베타테스트에는 현재 '캐로로 액션히어로', '모두의 빙고', '물타스타일' 등 20여개 게임이 참여 중이다. 이 외에도 약 50개 게임이 사전예약을 통해 추가 참여를 확정했다.

김범근 기자 nova@

www.dongsu.co.kr

세상에서 가장 쿨한카페 KANU

카누 아이스아메리카노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공원은 카페다

동서식품

좋은 원두, 좋은 커피

Maxim KANU

유해열의 플레이리스트로 여름기분을 즐겨보세요



www.kogas.or.kr

국민행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달립니다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가꾸어온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사례 ①

고성능 해수가열기 / (주) 강원NTS

(주)강원NTS가 국산화 기술개발에 성공한 '고성능 해수가열기'는 LNG 생산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산 기자재 수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의무거주 절반 축소

고양 원흥·인천 구월 '별드나'

규제합리화 방안 이달말 발표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에 미분양”

입주민 민원 빚발... 개선안 내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고

소형의무비율 확보 면적 없애기로

그린벨트 해제지구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마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급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급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 의무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입주민으로부터 거센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현재(처음 적용)		국토부 추진 개정안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4~8년	1~5년	최대 5년 이하	최대 2년 이하

다. 현재 보급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 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 제도는 당초 보급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되면서 보급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는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 원흥·인천 구월지구의 공공주택은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데도 계약 후 4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1년간 거주 의무가 있어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이달 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을 최대 5년 이하로, 거주 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옛 보급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아파트의 전

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남·서초 등 강남권 보급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점자들도 전매기간과 거주 의무기간이 축소돼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비사업 추진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40년에 이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 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앤다는 계획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첫 종합심사제 공사 '한양'이 낙찰

LH 발주한 수원 호매실 B8블록 “공사수행능력·가격 등 종합 고려”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주)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담판,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입찰한 44개사를 살펴보면, 특정 입찰물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분산입찰(70.464~93.32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위기 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저가 투찰 형태의 모습도 나타났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는 최고점과 최저점 간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나는 등 변별력이 일정부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평가 방법이 다양해 단순투찰가격상의

만점 업체는 18개사였으나 단가심사·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을 획득했다.

반면 건설고용 실적과 하도급·공정거래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의 가점까지 반영하면 만점 업체가 7곳으로, 가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공종 단가심사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기준단가 기준은 사업특성별로 '실제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점 수준이 너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사회적 책임 점수 가점은 현행 1점에서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 점수에 영향을 없이 공사수행 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정업체 수주 독점을 막기 위한 시공여유율 평가도 신설한다. 나아가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추가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영 기자 sympark@

경기도 전셋값, 강남 접근성이 좌우

3억원 이상 가구 90% 성남·용인시 집중 수요자 직주근접 선호 남·북부간 양극화

경기도 전셋값은 서울 강남 접근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는 성남시와 용인시 등 남부권에 집중돼 경기 지역 내 전셋값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시세 기준으로 경기 총 186만4044가구 중 전세가 3억원 이상 가구수는 총 18만7577가구다. 이 중 17만7555가구(91.57%)는 남부권에 몰려 있었으며 북부권은 1만5822가구(8.43%)에 불과해 남부권과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시군구별 3억원 이상 전세 가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로 총 6만4897가구다.

고급 주택복합이 많은 정자동이 1만6177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현동 9094가구, 수내동 7764가구, 이매동 7718가구 등 분당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성남시에는 경기 전체 3억원 이상 가구수의 34.60%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 북부 전체 합계인 1만5822가구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성남시에 이어 3억원 이상 전세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용인시로 2만8339가구로 나타났다. 이 도시에서는 죽전동(9910가구), 보정동(5262가구), 성북동(5076가

구) 동천동(3243가구) 순으로 3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가 포진돼 있다.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주로 강남 접근성이 양호한 새 아파트거나 중대형 아파트가 많았다.

안양시는 총 1만7010가구가 해당됐다. 평촌동 8238가구, 호계동 4131가구, 비산동 3946가구 등 평촌신도시 내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원시는 총 1만5471가구의 전세가가 3억원이 넘었다. 반면 경기 북부권에서 3억원 이상 전세가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였다. 이 도시에서 전세가 3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 1만361가구로 경기지역 전체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했다. 주로 식사동(3589가구), 마두동(3016가구), 주엽동(1482가구) 등에 포진해 있었다. 식사지구 새아파트와 일산신도시 중대형 아파트가 많았다.

경기 북부권 도시 중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꼽히지만 3억원 이상 전세가가 수는 각각 3006가구, 2453가구에 그쳤다. 부동산써브는 강남 접근성이 경기도 전셋값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남부권 도시들은 지하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경기 북부권에 비해 더 잘 발달돼 있고 강남으로 직결되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직주근접을 원하는 전세 수요자들이 여전히 경기 남부권 도시를 선호하고 있고 KTX, GTX 등 광역교통망도 남부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 남부권에 고가 전세가 쏠리는 양상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태진 기자 lipippo@



이라크 비스마아 주택공사 현장.

사진제공 한화건설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2차 토목기성 수령

8708만달러...내진 피해없이 진행 순조

한화건설이 이라크 비스마아 신도시 건설공사의 두 번째 토목기성 8708만 달러(약 885억원)를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12년 10월 선수금 7억7500만 달러(10%), 2013년 10월 1차 중도금 3억8750만 달러(5%), 올 4월 2차 중도금 3억8750만 달러(5%)와 1차 토목기성 1억720만 달러 등을 수령했다.

한화건설은 올 하반기 3차 중도금 약 3억8750만 달러(5%)와 3차 토목기성을 수령할 예정이다. 3차 중도금 수령을 위한 보증서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아 발급 완료했다.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은 “한화건설의 비스마아 신도시 사업은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병원, 경찰서 등과 같은 공공시설, 전력 및 상수도 등 20억 달러 규모의 비스마아 신도시 내 필요한 인프라 시설의 추가 수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동쪽으로 12km 떨어진 한화건설의 비스마아 신도시건설 공사현장은 교전 중인 이라크 북서부 지역과는 400km가량 떨어져 있다. 현대적 보안시스템과 이라크 정부군의 경호·경비 지원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주택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한화건설의 설명이다.

다만 한화건설은 직원 안전을 최우선하고 이라크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만일의 사태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이투데이 교육센터'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락사업실: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셋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 교육센터'

아마존, 中서 알리바바와 '클릭전쟁'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립

10년간 현지 성과 없자 경영진 교체하며 새 전략 마련

매출 기준 세계 최대 인터넷 소매업체 아마존닷컴이 중국 본토에서 알리바바와 정면승부한다.

아마존은 중국 첫 자유무역지대인 블 세울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아마존은 상하이 당국과 자유무역구에 새로운 형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에서 "상하이 자유 무역구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핸드백과 책 등을 보다 더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는 글

로벌 플랫폼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역 내 수출입품을 저장하기 위한 물류창고도 세우기로 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제품들이 이 창고로 걸집해 아마존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자유무역구에서 시행되는 여러 금융개혁 실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지난해 3000억 달러(약 307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알리바바와 JD닷컴, 양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이 막대한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9월 뉴욕증시 기업공개(IPO)를 실시하고 중국을 넘어 해외시장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마존이 상하이 자유무역구 진출로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아마존은 중국에서 활동한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중국 약 3000개 지역에서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조사업체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아마존

의 지난해 중국 시장점유율은 2%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경영진을 물갈이하는 등 중국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 5월 중국 온라인 청과물 유통업체 엄미77 지분 일부를 2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취급 제품 영역도 넓히려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회사는 지난달 아마존 글로벌 사업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던 덩 구르를 중국법인의 새 사장으로 임명했다. 덩 구르 사장은 "우리는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다양한 상품과 편리성을 갖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아마존은 중국과 인도에서의 대규모 투자로 지난 분기 1억2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자녀 정책' 폐지해도 '베이비붐' 일지않는 中

양육비 부담에 출산 꺼려 분유업체 주가 40% 급락 등 관련 산업 성장에도 경고등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11월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을 때 투자자들은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1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기대가 잘못됐다고 관망했다.

바이오테크인내셔널과 아스리인내셔널홀딩스 등 중국 분유업체 주가가 올들어 최소 40% 이상 급락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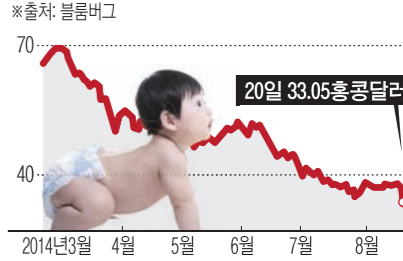
기저귀업체 형안인내셔널그룹도 올해 주가가 8.3% 빠졌다. 이는 MSCI중국지수가 올들어 6.3% 오른 것과 대조되는 움직임이다.

중국 부모들이 당국의 '한자녀 정책' 폐지에도 치솟는 양육비 부담에 출산을 꺼리면서 관련 산업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지난 5월말 기준 두 자녀를 둘 수 있는 1100만쌍 부부 가운데 실제로 아이를 더 낳겠다고 당국에 신청한 비율은 3%가 채 안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의 조사에 따르면 태어나서 18세가 되기까지 자녀 양육비는 연평균 2만3000위안(약 38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국 평균 가계

바이오테크인내셔널 주가 추이



소득의 43%에 해당되는 수치다.

장강 센트럴차이나증권 투자전략가는 "베이비붐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했다"며 "분유 등 관련 주식의 수익이 앞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기둔화도 부모들이 두 명의 자녀를 꺼리는 이유라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7.4%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유아 관련 산업은 물론 중국의 향후 거시경제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한자녀 정책을 폐지한 것도 고령화가 가속화해 경제활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으나 지금까지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의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억7800만명의 주민이 60세 이상 노인이다. 유엔은 오는 2050년에 노인 인구가 4억3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이라크 공습 멈추지 않을 것"

20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마서스 비너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자 이라크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슬람국가(IS)에 살해당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부모에게 애도를 표시했다.

마서스비너/AP뉴시스



세계서 가장 많이 팔린 맥주는?

中 '스노우'... 작년 103억ℓ 소비

중국 맥주 브랜드 스노우가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CNN머니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AB밀러와 현지 파트너 차이나리소스 엔터프라이즈가 생산하는 스노우의 지난

해 소비량은 103억ℓ에 달했다. 이는 세계 시장의 5.3%를 차지하는 것이다.

2위 역시 중국 맥주인 칭타오가 차지했다. 칭타오는 지난 1903년 독일과 영국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1972년부터 미국 시장에 수출했다. 칭타오는 해외에 가장 널리 알려진 중국 맥주로, 중국 내 고객충성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세계 최대 맥주업체 안호이저-부시인베브의 버드라이트가 51억ℓ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고, '맥주의 왕'이라는 광고로 유명한 버드와이저는 44억ℓ를 세계인이 마셔 4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스킵이 5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연징(중국) 하이네켄(네덜란드) 하얼빈(중국, 안호이저-부시인베브) 브라마(브라질) 쿠어스라이트(미국)가 나란히 '톱10'에 들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HP 3분기 매출 276억 달러 월가 예상치 뛰어넘는 성과

세계 2대 PC업체 휴렛팩커드(HP)가 월가의 전망을 상회하는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P는 지난 7월 마감한 회계 3분기에 27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272억 달러에서 늘어난 것으로 월가 전망치 270억 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9억8500만 달러, 주당 52센트로 전년에 비해 29% 줄었다.

특별항목을 제외한 주당순이익은 89센트로 월가 전망에 부합했다.

HP는 현 분기 주당순이익은 1.03-1.0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PC 판매가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이 실적 호전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XP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중단하면서 기업들의 새 PC수요가 증가했다고 원인을 풀이했다.

HP는 지난 분기 최대 1만6000명에 이르는 직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글로벌 리포트

中, 담합 日업체 2058억원 벌금

가짜 카르텔을 단속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12개 일본 업체를 적발했다"며 "그 가운데 10개 업체에 총 12억4000만 위안(약 2058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최대 벌금인 지난해 분유업체 6개의 총 6억7000만 위안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스미토모일렉트릭에게 부과된 벌금은 지난해 중국 연매출 6%에 해당하는 2억9040만 위안으로 적발된 업체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자동차용 와이어 제조업체 야자키총업과 베어링부품업체 NSK, 텐소 등이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리푸민 NDRC 비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하게 외국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부인하면서 '외국기업이든 자국기업이든 법을 위반하면 똑같이 처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NDRC는 기업들에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초 NDRC

는 폭스바겐의 아우디와 크라이슬러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바짝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스태이플스, 2분기 매출 방긋

미국 사무용품 판매업체 스타이플스가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매출을 공개했다고 마켓워치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태이플스는 지난 2일 마감한 2분기에 8200만 달러, 주당 13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는 1억300만 달러, 주당 16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분기 특별항목을 제외한 주당순이익은 12센트였다. 같은 기간 매출은 52억2000만 달러로 1.8% 줄었다. 월가는 51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다.

현 분기 주당순이익은 34-39센트를 기록하고 매출은 감소할 전망이다이라고 스타이플스는 덧붙였다. 월가는 스타이플스가 이번 분기에 주당순이익 37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르헨 자국법으로 디폴트 해결

13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은 아르헨티나가 미국 법원의 판결을 피해 우

회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계좌에서 외채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날 전국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뱅크로브뉴욕먼트의 법정관리인(trustee) 자격을 박탈하고 중앙은행에 해외 채권단을 위한 계좌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디폴트를 맞은 이후 '헤어아웃(손실상각)' 방식으로 빚을 갚기로 주요 채권단과 합의했으나 미국 해지펀드업체들이 부도 채권을 인수하고 나서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다시 디폴트 위기를 맞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법원 판결에 디폴트에서 벗어나기 어렵자 자국법에 의거하는 새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증권당국의 수장인 알레한드로 바비리는 "정부는 채권단이 채무 스왑에 참여하지 여부를 2-3주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새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음 채무상환일인 9월 30일 이전에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제품 이젠 싸지 않다"

BCG '비용 경쟁력 지수' '96 임금 치솟고 에너지 비용 상승 제조업 가격경쟁력 점차 약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더 이상 싸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치솟는 임금과 에너지 비용으로 제조업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가 이날 공개한 '글로벌 제조업 비용 경쟁력 지수'에서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이 96이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보다 불과 4%밖에 싸지 않다는 의미라고 BCG는 설명했다.

이전에 중국 지수는 대부분 80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수 급등은 그만큼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BCG는 중국과 함께 브라질 러시아 체코 폴란드 등을 제조업 가격 이점이 줄어드는 국가로 꼽았다.

반대로 미국과 멕시코는 임금상승률이 완만한 가운데 낮은 에너지비용으로 제조업 생산기지 이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BCG는 지적했다.

미국의 산업생산은 지난달에 전월 대비 0.4% 늘어나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

고 그 가운데 제조업은 1% 증가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CNBC는 풀이했다.

BCG의 할 시르킨 선임 파트너는 "과거에는 아시아와 남미에서 생산하는 것이 싸다는 간단한 규칙만 존재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인건비는 지난 2000년에 중국보다 두 배가량 비쌌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중국의 임금이 5배 가까이 올랐지만 멕시코는 상승폭이 67%(달러 환산 시 50% 미만)에 불과했다.

높은 에너지 비용도 중국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 2004년 이후 중국의 산업용 전력비용은 66%, 천연가스 비용은 138% 각각 급등했다.

반면 북미 지역은 세율혁명에 힘입어 전년 가스 비용이 같은 기간 25-34% 하락했다고 BCG는 분석했다.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이외의 물류비용도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 이전에 중국은 미주시장 수출 시 낮은 인건비 등으로 충분히 높은 물류비를 상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이점이 사라지고 있어 많은 미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이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야생동물 보호" 독서 속속 시위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파리지 광장의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동물보호단체(PETA) 소속 시위대가 박에 누워 속옷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PETA는 서커스, 무예 등에 독일정부가 야생동물을 이용한다며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베를린/AFP연합뉴스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실버타운 고르기

은퇴 후 주거, 공동체, 취미·여가, 간병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 경우 실버타운에 관심을 두게 된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에게 살고 싶은 곳을 물어보면 약 10%가 실버타운을 선호한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이 증가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실버타운(silver town)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국제적으로는 고령자공동체(senior community) 또는 은퇴공동체(retirement community)라고 부른다.

실버타운의 종류는 입지, 분양형태 등에 따라 구분된다. 어느 지역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입지상 특징에 따라서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으로 구분된다. 최근 10여년 사이 전국에 30여개의 실버타운이 생겼으나, 도심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주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자들이 실버타운 입주를 선택해도 자녀와 친지들과의 교류를 생각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실버타운은 사업주가 주거공간을 입주자에게 임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임대형', '분양형', '회원권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임대형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주거공간을 빌려주는 것이고, 분양형은 실버주택을 아파트 분양처럼 고령자들에게 파는 것이다. 모두 목돈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형 실버타운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형·근교형·전원형...

전국에 30여개 실버타운

비용 저렴한 임대형 인기

입주전에 '시험숙박' 필수

좋은 실버타운을 선택하려면 첫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고령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삶을 마감할 상태가 되더라도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실버타운이 좋다. 둘째, 시설관리가 미흡한 곳을 피해야 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하는 실버타운의 시설은 매우 좋은 편이다. 하지만 입주 후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되는 곳이 많아 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실버타운 운영기관의 재정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운영기관이 부도가 나가거나 재정난에 빠지면 입주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말기에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큰돈을 날리게 되면 노후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 운영기관이 비영리단체와 연금공단과 같이 정부산하 기관일 경우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입주한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식사 메뉴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문화와 취미·여가, 운동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버타운 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면 생활에 활기를 더할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재단이나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노인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드시 입주 전 2~3일씩 시험적으로 숙박을 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자신의 생활 스타일에 적합한지를 체험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은퇴연구소장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두 사람 관계 얼마나 깊까? "설리 정신 나간 것 아니야?" "최자, 엄청난 부자인가?" "최자, 이 시대 낱강도. 14살 차이 라니"... 비난과 악플의 홍수다. 19일 대중매체가 앳다워 보 도한 걸그룹 에프엑스의 설리와 힙합그룹 다이내믹 듀오의 최자 커플 열애설과 소속사를 통한 열애 인정 직후 나온 네티즌의 반응이다. 두 사람의 열애에 축하하는 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뉴스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두 사람에 대한 욕설과 비난, 논평이 넘쳐나고 있다. 열애라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대해 욕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대중과 언론매체의 호기심의 중앙에 선 두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쏟아지는 악플은 도가 지나치다. 사이버 테러 수준이다.

이 두 사람은 진짜 욕먹을 죄를 지은 것일까. 두 연예인의 사랑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일까. 비난과 욕 등 악플은 지난해 9월 열애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두 사람의 태도와 행보, 소속사의 거짓 해명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해 쏟아지는 악플의 근저에는 외모, 재산, 학벌, 나이 등 몰화된 조건의 교환시장으로 전락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지배적 인식, 관행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자·설리, 사랑하면 안 되나요?

인기 많은 20세의 어여쁜 설리와 34세의 평범한 외모 그리고 설리와 비교해 떨어지는 인지도 등 외형적 조건의 차이나 부조화라고 인식하는 것도 악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랑과 열애는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고 조건과 무관한 사랑이 많은 데도 외형적 조건만을 놓고 두 사람의 관계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다.

지금쯤 결별했지만 지난 2010년 톱스타 김혜수와 배우 유해진의 열애설이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톱스타가 왜 조연 연기자와 연인 관계가 됐지" "유해진이 엄청난 부자인가?" "유해진이 봉 잡았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혜수와 유해진 커플의 외형적 조건의 부조화라는 전제를 깔고 잘못 만난 커플로 매도했다. 김혜수와 유해진의 사랑에 대한 순수함이나 본질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몰화된 조건지상주의에 입각한 사랑의 원칙을 위반한 비정상적 연인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인기가 높은 톱스타 이효리와 인지도가 낮은 가수 이상순의 열애 공개와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몰화된 시선으로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는 단정적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도 많았다. 세 연예인 커플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몰화된 조건지상주의로 몰려들어 버린 외국인 연애관과 결혼관의 일면이다. 부와 외모, 학벌 등 외형적 조건으로 신랑과 신부가 서열화되고 등급화되는 우리 현실의 적나라한 투영이다. 수백억 재산가 여성의 공개 구혼에 수천명의 '물지마' 지원자가 몰리는 씩씩한 대한민국 풍경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용학 교수팀이 결혼정보회사 회원 1만

7000여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남녀 만남과 결혼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김 교수는 여성의 인상(얼굴)을 다섯 단계로 나눴을 때 등급에 따라 남편의 연봉이 평균 324만4400원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팀이 93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의 인상(외모)을 호감-약간 호감-보통-약간 비호감-비호감 등 5개 등급으로 나눈 후 남편의 연봉을 분석해 보니 등급 간 평균 324만여원의 차이가 났다. 이 조사 결과와 최자·설리 등 일부 연예인 커플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정말 관련이 없는 것일까.

외형적 조건의 교환시장으로 전락한 결혼과 사랑에 대한 2014년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보면서 떠오른 것은 최근 SNS와 인터넷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연봉 5억원 이상 결혼할 남성'을 원한다라는 글이다. 아담답고 세련된 25세 미국 여성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외모 등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배우자는 연봉 50만 달러 이상 버는 남성이고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50만 달러 이상 버는 한 남성은 "여성의 제안조건은 영타리 비즈니스 거래"라고 규정된 뒤 "여성의 외모는 갈수록 시들해지는 반면 돈은 영원하고 따라서 여성은 감가상각 자산이고 자신은 증가하는 자산"이라고 답변했다. 또 연봉 50만 달러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 여성에 대해 매각 대상이지 구매 대상은 아니라고 말한 뒤 "돈이 없어지면 당신은 날 떠날 것이고 당신 외모가 시들해지면 나도 빠져나와야겠죠"라며 이 여성과의 결혼은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글프고 분노할 일이라고? 우리 아닌 미국 이야기라고? 천만에! 지금 우리가 연예인 커플들에 보내는 반응과 무엇이 다른가.

knbae@



딸이 부모 돌보는 시간, 아들의 2배... 딸이 '노후밀친'

○...학생이 SNS를 통해 학교의 안전 상황을 알렸다는 이유로 학교가 해당 학생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왜 정당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위협받아야 하느냐며 학교를 비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자고 나기 전에 저렇게 먼저 위협을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건 학생이 학교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고발해야 하는 일인데", "여전히 정신 못차리네. 검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양심을 믿을 수가 없다. 밖에 있는 우리가 그렇다쳐도 그 건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 "저 교장 끈장 지



고 싶다" 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딸들이 부모에게 더 잘한다는 통話が 실제 연구 결과 드러났다. 딸이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시간은 12.3시간으로 아들의 두 배 이상을 차지했다. 네티즌들은 "딸은 진짜 있어야 한다. 오죽하면 여자(엄마)가 늙었을 때 필요한 다섯 가지 중 하나가 딸일까", "이건 집집마다, 아들 딸 나름 아닐까. 아들이 부모님께 연락 잘 드리고 잘 하는 경우도 많다", "아들은 대부분 아버지로서 경제활동을 한다. 여성의 경우 일부는 맞벌이를 하지만 일부는 전업주부도 머문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오늘의 **이웃** www.baekn.com

릭 베송 '최민식은 예전부터 존경했던 배우'

배국남닷컴은 영화 '루시'로 돌아온 세계적 거장 릭 베송 감독을 만났다. 20일 서울 CGV용산에서는 최민식, 릭 베송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루시'의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릭 베송 감독은 최민식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재능 때문이다"고 입을 열었다. 릭 베송 감독은 "악역의 틀이 정해져 있었다. 극적은 상관없다. 최민식은 예전부터 존경했던 배우고 같이 작업해 보고 싶었다. 만약에 (캐스팅 제안) 거절했다면 죽었을 것이다(웃음)."



꼭 한국인이 아니라도 중국인, 일본인 등 다른 배우를 캐스팅했겠지만 동양 배우를 원했다. 그렇게 하면 금발인 루시 역의 스칼렛 요한슨과 대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릭 베송 감독은 또 최민식이 촬영현장에서 보여준 열정을 언급하며 "감동한데 자꾸 다른 테이크를 해보고 싶다고 제안하는 배우만큼 만족스러운 게 없다. 배우가 그만큼 연기에 몰입하고,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최민식이 다르게 연기에 보겠다고 할 때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올 뉴 쓰렌토 UM, 실내 공개... 동호회 폭발적 반응 보니
- 2 美 기자 참수에 국제사회 '충격'...오바마, "이러크 공습 계속"
- 3 원도 업데이트 오류, 부팅 불능 공포감 확산... 해결법은?
- 4 현대차·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처치 다르네
- 5 이라크 반군 IS 미국 기자 참수 어머니 심경고백 '몽클'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가족네임택세트 손금네임택세트 손금네임택 출원기념 스와로브스키보수기 오너봉 골프장갑

골프티모음 골도시 VIP 골프기념품 손금볼마커 로고볼마커 보석볼마커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김경철의 아하!



논설실장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에 입성한 뒤 정치를 멀리하고 있거나...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당선된 이 전 대통령은 얼핏 이해가 된다. 반면 박 대통령은 정치판에서 대단한 정치 역정을...

이 전 대통령은 주요 정책이 정치 현안으로 커질 때마다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정작 경제는 잘 풀리지 않고 있다. 핵심 경제정책이 국회 문턱에 번번이...

최경환 경제팀, 불통을 깨야 산다

했다. '박근혜 노믹스'가 제대로 가동도 못 한 채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났다. 경제정책을 지나치게 비정치적으로 접근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에 신경을 더 쓴 덕에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에 제대로 공을 들였으면 어땠을까. 정치는 물론 경제까지 훨씬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었다.

경제의 정치화는 대세다. 싫든 좋든 엄연한 현실이다. 포퓰리즘의 창궐 같은 폐단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밟상이라고 그냥 외면하고 멀리할 수만 없다.

전두환 정부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마음먹은 대로 정책을 펼 수 있었다. 국회가 거수기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저변이 확장되면서 의사결정의 무게중심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의 만남은 정치 불통을 깨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재임 1년 반 동안 야당 지도자를 세 번 만났다. 지난해 4월, 문희상 당시 민주통합당...

최경환호가 벌써 기로에 섰다. 다시 일어붙은 세월호 정국에 출항조차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살리기는 일단 통했다. 환호까지 터졌다. 2011년 장기불황에 빨려 들어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고, 주가는 박스권을 뚫었다. 7:30 지방선거까지 여당 압승으로 돌려세우는 과격도 과시했다. '최노믹스'란 문패까지 붙었다.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만 붙을 법한 어마어마한 타이틀이다.

출범 36일을 맞은 21일 현재, 풍향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그 사이 감성모드에서 이성모드로 전환됐는지, 여기자로서 티격태격 소리가 난다. 사실 '최노믹스'는 옴니버스 버전이다.

재정투입이란 케인지안의 대표적 부양책을 앙숙인 신자유주의의 대표 도구인 규제완화와 함께 배치한 뒤 여기에 진보 진영의 소득주도 성장을 붙이고, 기업소득환류세 제단 한국형 신병기를 전진 배치하는 식이다. 논리적 모순과 이념적 반목이 그득해 시간과 장애물에 취약하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급파해준 기준금리 인하란 통화정책 원군은 이미 실전에 투입된 상태. 총체적인 불균형 때문에 급세 망가지기 십상이다.

정치불통은 경제불황과 사회불신 등 온갖 불(不)을 키우는 만병의 근원이다. 정경 통섭형 리더가 정말 시급한 이유다. '최노믹스'도 불통 위연선 꽃을 피울 수 없다. 통속 불통(通諷不諷·흐름이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뜻이다). 적어진 최 부총리가 하루빨리 소통 행진에 나서야겠다.

banta102@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주검의 행렬, 죽음의 군대



작은아들의 군 입대를 앞둔 고교 동창생은 요즘 신문 보기가 겁이 난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불만에 떨던 친구는 연이어 터진 장병 자살 소식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가능하다면 군 입대를 당장이라도 취소해 외국으로 보내 버리고 싶단다. 올초만 해도 아들이 군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지고 게으른 습관도 고쳐질 거라며, 아들은 꼭 현역병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친구다. 요즘 대한민국에 아들 가진 부모라면 다 이런 심정일 것이다.

군대 '죽음'의 상징이 돼 버렸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간 청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그것도 적어 아닌 전우의 영적 가혹행위의 결과라니 통탄할 노릇이다. 군 문제가 하나 둘씩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군 입영 거부운동까지 일고 있다. 자식을 어떻게 '사지(死地)'로 보낼 수 있겠느냐는 한 어머니의 울음 섞인 하소연엔 가슴이 먹먹해진다.

군대 내 사망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와 더불어 수뇌부의 은폐 조작 의혹 때문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군 특성상 행동이 굵고 학습력이 떨어지는 병사들은 '고문관'이라는 이름 아래 '기수열외' 등 인간 이하의 고통을 받아 왔다. 군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심지어 자살 등 사망 사건 등으로 어두운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문제 해결은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떠난 병사를 나라의 결코 지켜 주지 않았다.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한계상황이다. '죽음'은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는 현상으로, 동사 '죽다'에서 온 명사다. 그런데 이 '죽음'과 구별해 써야 할 단어가 있으니 바로 '주검'이다. '주검'은 죽

은 사람의 몸, 즉 송장·시체를 뜻한다. 사람 또는 동물 따위의 죽은 몸통이 이를 뜻하는 말인 '사체(死體)'와 같은 의미다. '죽(死)+음'으로 이뤄진 파생어로, '죽-'은 뜻을 담당하는 어근이고, '-음'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죽음과 주검 둘 다 '죽다'에서 파생한 말이지만 표기가 다른데, 이에 대한 설명은 한글맞춤법 제3절 제19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어간에 '-이'나 '-음'·'-모'이 붙어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죽음 외에 울음, 믿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어간에 '-이'나 '-음'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한다. 마감, 무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 상 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를 젊은이들에게 군복무 기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군이 투명해야 한다. 장병의 인권과 안전 보장은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불신과 불안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 군대가 하루빨리 바로 서야 할 것이다. 사법체계를 손보고,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윤 일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편집부 교열 기자 jsjysh@

객석

영화 '군도', 조운을 만나다

(명량)의 여파로 이제는 시들해졌지만, (군도)의 초반 흥행몰이는 대단한 것이었다. 조선 말기 철종 시대를 배경으로 그 당시 암울했던 민초들의 삶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면서도, 전형적인 웨스턴 무비의 흥행 요소를 잘 살려낸 덕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점은 강동원이 연기했던 조운이라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장한다. (군도)의 제작진이 조운이라는 인물을 설정하기 위해 (고하토)의 미소년 무사 카노를 참조하였는지는 여부는 아마추어 영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알 길이 없다. 조운의 악행들을 모두 망각해 버리게 될 정도로, 도치(하정우 역)를 비롯한 자리산 추월 무리들이 그와 대립하는 상황들에 대해 감정이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운이라는 인물은 정말 잘 디자인되었고, 영화 속 인물이 배우 강동원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닐까는 생각이 들 만큼 강동원의 연기도에 홀렸었으니, 15년이나 지난 영화의 인물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군도) 속 조운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콘텐츠라 하겠다.



더군다나, 조운 덕분에 기억속에 까마득히 묻혀 있던 영화 (고하토)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었으니, (군도) 속 조운을 만나는 경험은 여러모로 유쾌한 경험이었다. 김민수 공인회계사

기자의 눈

팬택, 사람과 기술을 지켜라



서지희 산업부 / jhsseo@

"가장 중요한 것은 1800명 직원이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팬택의 고위 관계자는 법원으로 부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승인을 받은 후 이 같은 얘기를 수차례 강조했다. 팬택은 23년 전 박병업 전 부회장을 필두로 한 6명이 모여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전문기업의 초석을 다졌다. 어느 기업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 같은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팬택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한 후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운영 방안이다.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팬택은 '순환 유급휴직제' 카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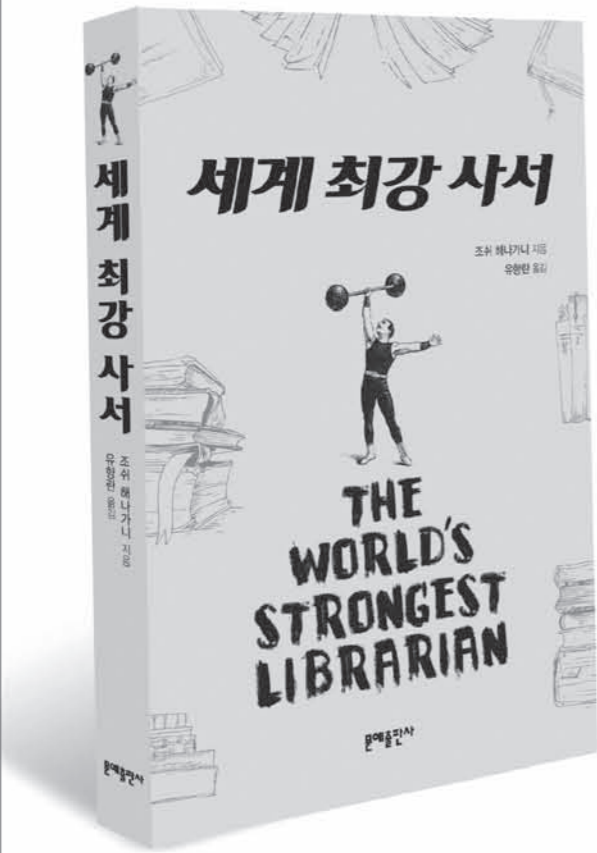
꺼내들고 각 부분마다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려고 전담했다. 고용불안을 느끼는 직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을 제 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회사의 노력에도 최근 연차가 낮은 과장급 이하 직원 중 일부가 회사를 이탈하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비관 끝에라도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인력 이탈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팬택은 '사람과 기술'로 벤처신화를 써왔다. 시장을 비롯한 조직 안팎의 환경 변화로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뚜기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업계도 인정하고 있다. 팬택은 지난달 중순경 김포공장 가동을 이미 중단했고, 중앙연구소 역시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를 잠시 손 놓았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금이 아마 지난 7년 동안 1·2차 워크아웃을 겪어온 시간보다 위기인 것은 자명하다.

팬택의 앞날에는 여러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다. 그러나 '팬택의 천행(天幸)'이었던 사람과 기술을 여는 때보다 더 꼭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운명적인 시련을 가족의 사랑과 웃음의 힘으로 극복해낸 기적 실화!



세계 최강 사서

조쉬 해나가니 지음 | 유희란 옮김 | 392쪽 | 13,800원

중증 투렛 증후군의 아픔을 책에 대한 열정과 가족의 도움으로 극복해나가는 행복한 사서의 감동 스토리

오프라 윈프리 추천도서

아버이라는 존재, 우정, 결혼, 그리고 이 책의 저자와 가족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기적을 슬프고도 애절하게 노래한 원대하고 감동적인 비가(悲歌). 한번 잠으면 절대로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 없고, 결코 잊을 수 없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하고 또 완벽한 보석 같은 작품.

— 펴 읽힌 (What to Read When)의 저자

이 책을 읽으라,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웃고 배우라. —(워싱턴 포스트) 두려움을 모르며 유쾌한 책. —(뉴욕) 고집의 힘에 대한 감동적이며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 —(퍼플) 통찰과 유머, 은혜와 경이로 가득 찬 놀라운 이야기. —(스위트 하츠의 저자) 정말로 재미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리는 매혹적인 회고록. —(조 렌스데일(Edge of Dark Water)의 저자) 재미있고 진지하며 감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이로운 휴먼 스토리. —루 솔러(New Rules of Lifting)의 공동 저자) 조쉬 해나가니는 도서관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오로지 이런 책들 덕분이다. (세계 최강 사서)아말로 독서의 즐거움이다. —(크리스 길아보(The \$100 Startup)의 저자) 이 회고록은 앞으로 오랫동안 당신의 가슴 깊이와 달을 현대의 고전으로 풍요롭고 지혜롭고 중요한 책이다. 조쉬는 그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용감한 사람이다. —세스 고딘(Linchpin)의 저자



JOSH HANAGAN

보험문화, 영업 중심서 '고객만족'으로

신장재 교보생명 회장, 경영학자가 뽑은 '최고 경영자' '즉시연금' 도움 안된다고 판단... 한달만에 판매중단

신장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이 20일 생보사 최고경영자(CEO)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경영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됐다. 경영자 대상은 경영학 분야 국내 최대의 학술단체인 한국경영학회가 국내 경영인 가운데 확고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을 건설하게 이끌고 기업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신 회장이 경영학자들로부터 최고의 경영인으로 선정된 이유 가운데에는 보험업계의 문화를 '영업우선' 중심에서 '고객만족'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신 회장의 '고객만족이 최우선'이라는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다.

그는 항상 "고객 없이는 회사가 존재하지 못하며 진정한 성공은 고객과 상생

이다"고 주장한다. 금융사는 고객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0년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신 회장은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만들기'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회사의 모든 조직과 전략, 규정, 제도, 업무프로세스를 비전에 맞게 바꿔 나갔다.

아울러 임직원들과 부단히 소통하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고객중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갔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경영철학은 교보생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일례로 지난 2012년 9월 교보생명은 '즉시연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듬해 시행 예정이던 비과세 혜택 폐지에 대응해 매달 수천억원의 뭉치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신 회장이 내린 결단이 었다.



당시 보험사들은 '마지막 비과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절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신 회장은 길게 보면 회사와 고객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 달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심각한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노력으로 신 회장은 지난 2008년에는 경제5단체로부터 생보업계 최초로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지속가능경영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한국표준협회의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생명보험 부문 3년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미국방부 비서실장에 한인2세 렉스 류씨

'헤이글의 두뇌' 별명 얻기도

한인 2세 렉스 류(41·사진)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확산담당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번주부터 국방부로 출근하는 류 전 비확산담당관은 다음 달 1일까지 업무를 인계받을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오렌트에서 태어난 류 전 담당관은 헤이글 장관이 상원의원으로 일하던 2005-09년에 헤이글 장관의 비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헤이글의 두뇌'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는 유엔주재 미국 차석 대사의 직책을 맡아 각종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와 유엔 대표부의 업무조정을 담당했



다. 류 전 담당관은 국무부에서 중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외교·안보분야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나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

국대사와의 갈등으로 국무부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류 전 담당관은 이라크 내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주요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헤이글 장관이 관심을 두는 미국의 아시아 증시정책에 대해서도 류 전 담당관이 조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日 111세 할아버지 최고령 남성 등재

모모이 사카리 기네스북에

올해 111세인 일본 남성 모모이 사카리가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20일(현지시간) 공식 등재됐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1903년에 태어난 모모이는 농화학 교사로 평생을 일했으며 1950년대에 교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그는 도쿄의 한 의료기관에서 요양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혼자서 독서를 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며 등등정당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모이는 "나의 건강상태는 좋으며 앞으로 2년을 더 살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 남성은 폴란드계 미국인 알렉산더 이미지로 지난 6월에 이미지가 세상을 떠나 그보다 생일이 하루 늦은 모모이가 기네스 공식 세계 최고령 남성이 됐다.

현재 세계 최고령 여성은 일본인 오카와 미사오로 116세이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올해 111세인 일본 남성 모모이 사카리가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20일(현지시간) 공식 등재됐다. AP/연합뉴스

김수현 세종대학교 교수 서울연구원장에 임명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제14대 신임 원장에 김수현(52·사진) 세종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석사과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정과제, 국민경제,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냈고, 환경부 차관도 역임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유재석·조인성·성유리·클라라·박한별·서장훈...

'즐겁게' 얼음물 뒤집어 쓴 스타들

조인성, 유재석, 성유리, 서장훈 등 스타들이 온통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FC바르셀로나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데이비드 베컴, 할리우드 톱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등이 시행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아이스버킷챌린지 열풍이 국내 연예, 사회, 경제, 정치계로 확산되며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은 미국 루게릭병 협회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만든 모금 운동이다. 얼음물 샤워 장면을 SNS에 공개한 뒤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해야 한다. 지명된 사람은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기부금을 내야 한다. 참여 후 3명의 다음 대상자를 지목하는 방식이 캠페인의 확산을 이끌고 있다. 미국 경제의 '큰손' 빌 게이츠는 물론이고,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얼음물로 샤워했다.

최근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풍이 국내에

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 확산 루게릭병 환자위한 모금운동 참여 후 다음 대상자 3명 지목 메시·호날두·네이마르 등 참여 광희는 박원순 서울시장 선택

도 상륙해 조인성, 선, 슈퍼주니어 최시원, 클라라, 유재석, 이광수, 성유리 등 국내 연예계를 중심으로 캠페인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돌 광희는 다음 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목해 웃음을 자아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역시 클라라에게 지목 당한 상황이고, 소설가 이외수도 율라세션에게 캠페인 참여를 권유받았다.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사의 수장 SM 이

수만, YG 양현석, JYP 박진영 역시 아이스버킷챌린지 대상자로 지목 받았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축구선수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박지성을 지목해 관심을 모았고, 차태현, 정준하, 손흥민, 정은지, 포맨 신용재, 박한별, 추신수 등 대상자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 2002년부터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박승일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전 코치는 직접 얼음물을 뒤집어쓰지 않고 인공 눈 스프레이를 뿌려 관심을 모았다.

박승일 전 코치는 "얼음물 샤워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준 슈퍼주니어 최시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루게릭병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주시는 것에 가슴 벅차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라는 소감을 밝혔고 유재석은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며 아이스버킷에 임하는 느낌을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한 스타들. 왼쪽부터 조인성·광희·베스타·클라라.

인사

◆대전시 ◇5급 승진 예정자 △교육협력 담당관실 강연용 △감사관실 강희식 △문화산업과 김영교 △총무과 김낙철 △세정과 김병호 △총무과 김선경 △자치행정과 김영환 △자치행정과 김재식 △총무과 김종민 △여성가족청년소년과 김주희 △의회사무처 김철식 △복지정책과 문상훈 △조정행정추진단 박인태 △장애인복지과 박찬권 △여성가족청년소년과 백계경 △신성장산업과 심상간 △회계과 안상일 △건설도로과 안용성 △경제정책과 양경숙 △지적과 양성현 △복지정책과 오명근 △운송주차과 유해금 △정책기획관실 유희광 △문화예술과 이영일 △신성장산업과 이희정 △정책기획관실 임재호 △예산담당관실 임준태 △과학특구과 장세근 △교통정책과 전태식 △일자리추진기획단 정애영 △의회사무처 조남영 △자원순환과 조남영 △세정과 장석 △정보화담당관실 이현희 △한밭도서관

관 김혜정 △한밭도서관 한성례 △회계과 황선무 △공원녹지와 어성득 △공원녹지와 이권구 △보건정책과 안상제 △식품안전과 이정희 △보건정책과 이경숙 △환경정책과 송영규 △환경정책과 이지선 △공원녹지와 광성섭 △재해예방과 도기설 △건설도로과 문성운 △주택정책과 박수연 △감사관실 서예철 △도시재생과 최영준 △도시철도기획단 한성수 △건설도로과 영삼 △도시활성화기획단 운영식 △문화체육시설과 이원전 △정책기획관실 양기현 △도시디자인과 이구태 △문화산업과 정신영 △지적과 최병성 △도시계획과 정현호 △정보화담당관실 이경구

◆국립생물자원관 ◇과장급 보임 △유용자원활용과 연구관 오경희 △전시교육과 연구관 유정선

◆대구대 △부총장 이상기 △교무처장 변찬석 △취업학생처장 최용용 △산학협력처장 이덕영 △사무처장 권옥동 △홍보비서실장 고진한 △교무부처장 황인조 △

기획부처장 황보각 △대학원장 장승현 △대학원 부원장 이기연 △기초교육원장 안현호 △기초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소장 강민근 △LINC사업단 부단장 장중혁 △LINC사업단 사업관리실장 김상현

부음

▲박종필(코스콤 정보재구조축TF팀 부처장)·종영(이은솔루션 팀장)씨 부친상 = 19일 오후 10시 45분,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2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 15분, 02-2290-9442

▲김순영(광주 운림중 교사)씨 남편상 = 19일 오후 11시,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광주 서산동성당, 062-250-4455

▲강혁준(영주교 교사)씨 부친상 = 19일 오후 9시, 제주시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10-5667-427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 이태식 한양대 교수 선임

이태식(사진) 한양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일 제4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태식 한양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 원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과 1990년 미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건설경영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건설관리학회, 한국철도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학술단체장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강영관 기자 kwan@



유흥수 前의원, 주일대사 내정

외교부는 20일 유흥수(사진) 주(駐)일본 대사 내정자가 주재국 동의를(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주일대사로 공식 임명됐다고 밝혔다.

유 대사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23일께 일본으로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을 신임 주일대사로 내정했다.



한화그룹 '청소년 오케스트라 캠프'

한화그룹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한화와 함께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캠프'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총정원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펼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달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린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숲체험에서 전안, 청주 지역 청소년 40여명이 참가해 열기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을 함께 연주하는 등 합주곡을 연습하며 음악을 완성하는 재미를 경험한다.

한화그룹은 전안, 청주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상대로 지난 1월부터 현악앙상블(전안), 관악앙상블(청주)을 결성해 클래식 악기 연주법을 가르치고, 이들의 공동체 의식 체득을 돕고 있다.

두 앙상블은 캠프에서 연습한 곡으로 내달 20일과 23일 전안 예술의전당, 청주 MBC 아이홀씨어터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회를 펼친다. 이



사진제공 한화그룹

날 연주회에서는 연습과정을 기록한 영상, 음악에 대한 솔직 발랄한 이야기,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사진작품으로 만든 영상배경을 관객들에게 음악과 함께 전달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은 김경선 총감독(꿈의 오케스트라 수석강사)은 "9월에 전안과 청주에서 열릴 첫 번째 정기연주회 '만남'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sinemargo@

“스타만 바라볼 순 없죠” 엔터테인먼트사의 무한변신



엔터테인먼트사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무한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급변하는 K-POP(케이팝) 열풍에 몸을 실은 엔터사들은 저마다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케이팝이라는 색을 덧칠하는 중이다. 아이돌 밴드를 콘셉트로 대만 등지에서 인기몰이 중인 씨엔블루와 FT아일랜드, 걸그룹 AOA 등을 보유한 FNC엔터테인먼트는 계열사인 FNC아카데미를 통해 케이팝 관련 사업 다각화에 발을 견어붙였다.

FNC아카데미는 최근 FNC글로벌센터(FNC Global Center)를 오픈했다. FNC글로벌센터를 통해 케이팝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외국인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FNC글로벌센터는 높은 케이팝의 인기를 바탕으로 인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음원 유통의 강자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는 케이팝이라는 콘텐츠를 디딤돌 삼아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 성과를 내고 있다.

로엔은 지난 2월 케이팝 콘텐츠를 공유하고 한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통합 브랜드인 '원더케이(1theK)'를 공식 론칭, 기존 로엔의 케이팝 콘텐츠와 SNS 등의 뉴미디어 채널을 통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 성과는 '10억 뷰'로 나타났다. 원더케이 유튜브 공식 채널의 전체 콘텐츠 조회 수가 지난달 10억 뷰를 넘어섬에 케이팝 콘텐츠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인기 안무를 배워 보는 '렛츠 댄스', 아티스트 키워드 인터뷰 '해시태그', 팬의 질문에 아티스

FNC엔터

외국인 대상 글로벌센터 오픈
케이팝 전문 교육...인재 발굴

로엔엔터

통합 브랜드 '원더케이' 론칭
유튜브 채널서 지난달 10만뷰

CJ E&M

美 음원 사이트 버즈뮤직 협업
'엠웨이브' 통해 케이팝 소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케이팝 콘텐츠 공유를 위해 론칭한 글로벌 통합 브랜드 '원더케이'.

트가 직접 답하는 '에스크 인 어 박스'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원수 로엔 대표는 "원더케이는 케이팝 콘텐츠의 소통과 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이 돼 지속적으로 파트너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 업계의 상생과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케이팝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 E&M 역시 로엔과 마찬가지로 케이팝 콘텐츠를 이용해 해외시장을 공략, 다만 브랜드 론칭이 아닌 미국 음원 서비스 회사와 손잡는 쪽을 택했다. CJ E&M 음악사업부부문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음원을 선정해 소개하는 큐레이터로 미국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버즈뮤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버즈뮤직 '큐레이터'는 권위와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음악 취향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선곡 리스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톨런스톤이 매거진, 울트라뮤직 등 30개 음악 전문 브랜드가 큐레이터로 참여 중이며, CJ E&M은 글로벌 음악 브랜드 '엠웨이브(Mwave)'를 통해 버즈뮤직에 케이팝을 소개한다.

CJ E&M은 지난 3월부터 '버즈뮤직'에 15만 곡에 달하는 케이팝 음원을 독점 공급 중이다. 향후 케이팝 제작자들이 손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CJ E&M 음악사업부부문 안석준 대표는 "음원 독점 공급에 이어 큐레이터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한국 음악을 해외시장에 어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셋별 기자 byul0104@

개그우먼 이국주, 이유 있는 인기

"짜짜짜짜 나는 짜게 먹자-호로록! 호로록!" 개그우먼 이국주에 시청자가 환호를 보낸다. 남자 예능스타의 인기 독식 속에 개그우먼 이국주의 인기가 치솟으며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살집 있는 폼뎀을 지닌 이국주는 '미녀 개그우먼'이라 불리며 인기를 높였던 이들과 달리,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이며 유쾌한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2006년 MBC 공채 15기로 데뷔한 이래 9년 만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국주는 최근 tvN '코미디빅리그', '로맨스가 더 필요해'에 고정 출연하는 한편 SBS '런닝맨', JTBC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국주가 여자 개그우먼 중 단연 눈길을 끄는 이유는 뭘까. 이국주 인기의 가장 큰 원동력은 빼어난 코믹 연기다. MBC '개그야'부터 tvN '코미디빅리그'에 이르기까지 9년 동안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패러디에서부터 풍트, 슬랩스틱 코미디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뛰어난 코믹 연기를 선보여 시청자의 웃음보를 자극했다. 그녀를 스타덤에 올린 '코미디빅리그-수상한 가정부' 코너는 이국주 코믹 연기의 진수를 보여준다. 구렛나뭇에 가족재킷을 걸치고 얇은 끈 캐리커 '보성택'으로 분한 이국주가 연발 '의리!'를 외치며 연기자 김보성을 패러디해



당당함 무기로... 인기 호로록

최근 대중문화계의 화제로 대두했던 '의리' 열풍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이국주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바로 코믹 연기뿐만 아니라 토크쇼에서부터 리얼 버라이어티까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입담은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의외성과 웃음포인트 포착능력, 임기응변, 에드립 등이 출중하다는 점이다. '런닝맨' '해피투게더' '셀전' '무한도전' 등에 출연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도 다양한 재능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외모를 당당한 웃음의 소재로 활용하고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시청자의 진심어린 환호를 유발한다.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으로 승화시킨 이국주의 매력에 수많은 시청자가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이국주는 최근 호평받는 자신의 인기에 대해 "단순히 풍성한 외모로만 웃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그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에 좋아해 주시는 것"이라고 자신의 연기관을 전했다.

남자 예능스타가 특색하는 예능계에서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웃음을 주는 이국주는 분명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예능스타로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랭킹 엔터테인먼트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최민식, 류승룡 주연의 영화 '명량'이 주간 38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 '해무'는 개봉과 함께 3위에 안착했다. TV는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시청률 27.8%로 전주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KBS 2TV 주말드라마 '참좋은시절' 후속으로 방영된 '가족끼리 왜 이래'가 첫 방송과 함께 시청률 2위를 기록했다. 음악 부문에서는 위너의 강세가 돋보인다. 위너의 '공허해'와 '컬러링'이 진입과 동시에 각각 1·8위를 차지했다.
홍셋별 기자 byul0104@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관객	누적관객
1	명량	382만5706명	1462만2809명
2	해적: 바다로 간 산적	248만913명	429만2969명
3	해무	92만1212명	93만1763명
4	안녕, 헤이즐	22만3734명	22만8611명
5	드래곤 길들이기2	22만1387명	291만1518명
6	비행기 2: 소방구조대	19만4247명	19만8307명
7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7만7625명	121만2459명
8	명탐정 코난: 이차원의 버려진	14만343명	34만9996명
9	비긴 어게인	9만3548명	10만1514명
10	국정편 포켓몬스터 AG-이름다운 소년의 별 지리치	5만4917명	5만5674명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왔다장보리	27.8	MBC
2	가족끼리왜이래	21.6	KBS2
3	고양이는있다	21	KBS1
4	빠꾸기둥지	16.4	KBS2
5	KBS9시뉴스	15.9	KBS1
6	개그콘서트	14.5	KBS2
7	해피선데이	13.5	KBS2
8	엄마의정원	12.8	MBC
9	인간극장	12.4	KBS1
10	무한도전/순금의방	12.3	MBC/KBS2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공허해	위너	진입
2	에빠졌다	박보람	12
3	터치 마이 바디	씨스타	-2
4	환여름밤의 꿈	산이, 레이나	-2
5	힐	블락비	0
6	달링	질스데이	-2
7	바디랭귀지	산이	-4
8	컬러링	위너	진입
9	빨개요	현아	-3
10	눈, 코, 입	태양	-3

(주)데니스 www.dennisgolf.co.kr | www.dennismall.co.kr | 02-3481-2250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 기술력 -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하이언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기술 + 우드형 헤드설계로 인해서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총 중량이 더 가볍고 헤드밸런스가 가벼워서 스윙이 쉽고 편하다.
- 트랙맨(TrackMan) 분석결과 백스핀이 1.12배 더 증가했다.
- 헤드의 솔이 넓기 때문에 뒤땅이 없다.
- 쓸어치게 되기때문에 엘보우가 없다.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 점 (031-695-1845)
영등포 (02-2639-1536)
충청점 (041-640-5753)
광주점 (062-360-1402)

강남점 (02-3479-1532)
인천점 (032-430-1563)
부산점 (051-745-1823)

경기점 (031-695-1845)
의정부 (031-8082-0712)
마산점 (055-240-1406)

·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 안양베네스트 cc
· 동래베네스트 cc
· 가평베네스트 cc

· 이포 cc
· 안양베네스트연습장
· 센추리21 cc

· 신원 cc
· 아시아나 cc
· 해비치 cc 서울

반포 골프백화점 (02-534-022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Inside ▶▶▶



세계 말 산업 현장을 가다

22-23면



내달 6일부터 대학 수시모집

24-25면

군불 지핀 여름분양... 가을엔 '햇불'

Cover Story

분양시장 '가을 大戰'

9-12월 전국에서 12만8800가구 공급
작년보다 26%↑...수도권 5만8000가구
집값 상승 기대감에 새 집 선호도 상승
위례신도시·동탄2신도시·세종시 주목

지난 8일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픈 3일간 2만8000여명이 다녀가며 인기를 끌었다. 입장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30분씩 줄을 섰고, 유니트를 보기 위한 줄도 꼬리를 이었다는 관계자의 전언. 이에 견본주택 주변에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뺨다방'이 천막을 치고 견본주택에서 나오는 예비 고객들을 상담하고 정보를 얻는 모습도 연출됐다.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가을 분양시즌이 임박했다. 여름 비수기에도 뛰어난 호황을 보였던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에도 분위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9-12월 전국에 새 아파트 12만8864채가 공급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만6552채) 늘어난 규모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이나 임대아파트를 뺀 일반분양 물량도 전년 대비 13.3%(1만2032채) 많은 10만2249채가 쏟아진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9-12월 5만8097가구가 선보인다. 전년 동기보다 22.5%(1만654가구) 많은 물량이다. 이 중 4만296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권역별로 서울과 인천은 공급 물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12-25% 줄어드는 반면 경기지역은 분양 풍년을 맞을 전망이다.

지방도 공급 물량이 풍성하다. 9-12월 7만767가구가 쏟아진다. 전년 동기 대비 29%(1만5898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분양 물량만도 10만2249가구에 달해 청약통장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물량이 풍부하다. 또한 오랜만에 세종시에 대형건설사들의 신규분양과 수도권외의 경우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 한강 이남 대규모 택지지구 분양이 눈길을 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브라질 월드컵, 여름철 비수기 등이 이어지면서 적극적으로 신규 분양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으로 여름에도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이어가면서 물량 출시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에도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7

월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장 회복세가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을 넘어 미분양 아파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선입견이 줄어들면서 전략적인 이유로 미분양 아파트에 주저하는 혜택을 활용해 새 아파트를 장만하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때 제공하는 계약금 분납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혜택을 적용 받아 구매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경우 미분양 적체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양 단지의 장단점과 입지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한편 자신의 자금동원 능력 등도 냉철히 계산한 뒤 아파트 청약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강영관 기자 kwan@

커버스토리 20-21면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가을 분양시즌이 임박했다. 여름 비수기에도 뛰어난 호황을 보였던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에도 분위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8월 중순경 분양에 나선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전경.



골프·수영... 커뮤니티 특화

롯데건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롯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중동 650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를 분양 중이다.

용인에 중대형 아파트들이 대거 공급된 반면 '신동백롯데캐슬 에코'는 30평대 중형 면적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큰 특징이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지하 3층, 지상 17~40층 아파트 26개동에 2770가구로 구성되는 대규모 단지다. 두 개 블록으로 나뉘지며 1블록에는 17개동 1902가구가 들어섬 2블록은 9개동에 868가구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들을 자랑한다.

소규모 실내 골프연습장과는 다른 30~50m 규모의 6홀 미니 형 파3 골프장이 설치된다. 클럽하우스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4개 레인(길이 25m)을 갖춘 실내수영장과 800여㎡ 규모의 대형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하우스, 개인작업이나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스튜디오, 200석 규모의 대형독서실과 북카페를 조성했다

단지 내 상가에는 삼육어학원(SDA)이 입점해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등록권, 수강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친환경 자재, 유해물질 최소화

SK건설 인천 SK 스카이뷰

SK건설은 인천 남구 용현동 604-1번지(용현학익지구 2-1블록)에 총 3971가구의 '인천 SK Sky VIEW(인천 SK 스카이뷰)'를 분양 중이다.

인천 SK Sky VIEW는 지하 2층에서 최고 지상 40층, 총 2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27㎡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800가구 △84㎡ 2282가구 △95㎡ 295가구 △100㎡ 239가구 △109㎡ 156가구 △115㎡ 138가구 △126㎡ 22가구 △127㎡ 39가구 등이다.

4000가구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 규모에 최고 지상 40층으로 완공시 인천시 남구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된다. 전용 85㎡ 이하가 총 세대수의 77%로 구성돼 실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1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해당되는 청정건강주택 건설의무도 인천지역 최초로 적용됐다.

국내 최고 수준의 E0급 내장가구재, 친환경 접착제 등을 사용해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을 최소화하여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중앙정수처리 시스템으로 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음용수를 각 세대에 공급한다.

특화설계에 특별분양... 발코니 무료확장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퇴계원 힐스테이트

봄 이사철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와 뛰어난 서울 접근성, 역세권 입지로 실수요자와 주택수요자의 관심을 받았던 '퇴계원 힐스테이트'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또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셋값 상승에 고민 중인 수요자에게 딱 맞는 아파트로 추천되고 있으며 다양한 특별분양 혜택까지 주어져 더욱 부담없는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건설업계 최고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 5년 연속 1위 현대건설이 분양 중인 남양주시의 퇴계원 힐스테이트는 입주자를 중심으로 힐스테이트의 특화 설계에 대한 자부심과 살기 좋다는 입소문이 나고 있으며 뛰어난 입지, 특별한 분양혜택에 힘입어 잔여물량 소진뿐만 아니라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계약금 정액제 실시, 잔여세대 발코니 확장 무상지원 등 특별분양 조건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계약금은 전용 84㎡는 2000만원, 전용 99㎡는 2500만원이다. 계약 후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퇴계원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지상 12-22층, 21개



동, 총 1076가구 규모이며 전용 84㎡ 756세대, 전용 99㎡ 320세대를 분양 중이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99㎡로 이뤄져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단지 내에는 도제원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어 초등학교 자녀들이 차도를 통과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둔 학군 수요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기억되는 아파트 자이, 앞선 아파트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자이는 늘 당신의 생활에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손끝 하나로 컨트롤되는 홈 네트워크는 물론 환경까지 배려하는 그린스마트시스템

단지 내 원스톱 커뮤니티, 자이인센터에서 입주주민 불편제료를 위한 CS전용 콜센터까지

모든 것이 더 스마트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최초의 기술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자이,

가장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

Made in Xi

SAMSUNG 삼성물산

래미안 에스티움

삼성물산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7구역에 재개발한 '래미안 에스티움'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7호선 더블역세권으로 뉴타운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좋고, 신안산선 및 경전철 신림선 등의 교통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래미안 에스티움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9개동 전용면적 39~118㎡ 총 1722가구 규모이며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8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래미안 에스티움은 신길뉴타운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가장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하철 이용시 강남권으로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국제금융지구 여의도는 물론 영등포 업무지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신도림 업무지구 등의 주요 업무지역이 있어 직주근접 단지로 배후 수요가 풍부하며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7호선 신공역은 신안산선 1단계(안산 중앙역~여의도역) 사업이 2018년 완공됨에 따라 환승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보라매역도 2019년에는 경전철 신림



선(여의도-서울대앞)과 환승할 수 있는 환승역이 되어 트리플라인 더블역세권이 형성된다.

단지 주변으로 기부채납부지에 중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비롯해 대방초, 대길초, 대영초와 강남중, 대영중, 대영고, 영신고 등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42만㎡ 규모의 보라매공원 초입까지 도보 10분대로 이용이 편리하며 신길근린공원,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등도 가깝다.

한강 조망권에 교통·생활 시설 접근성 우수

대우건설

용산 푸르지오 써밋

대우건설이 용산역 바로 앞의 고급 주상복합 '용산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91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2구역에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38층(주거용), 39층(업무용) 2개동으로 전용면적 112~273㎡의 아파트 151가구, 전용면적 24~48㎡의 오피스텔 650실, 오피스와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주거·업무·상업 복합 시설이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106가구와 오피스텔 455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고급 주거지로서의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 이 단지는 쾌적한 주변환경, 뛰어난 교통과 생활권의 시설이 가장 큰 강점이다.

한강과 남산의 조망이 가능하며(일부세대), 한강시민공원, 용산가족공원 등이 가까이에 위치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단지 전용차량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 미군기지 부지는 향후 여의도 크기만한 초대형 공원으로 변모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도보 5분거리 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지하철 14호선, 중앙선, KTX의 이용이 편



리하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등 도로교통망을 통한 도심 접근성도 뛰어나다.

아이파크몰과 이마트 등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서울역 인근의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건본주택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133번지(신용산역 2번 출구 방면)에 위치하며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분양 상담사들도 배치됐다.

4베이 설계·V자형 단지 배치로 조망권 확보



동탄2 A66블록 공공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신도시 공공 분양아파트 A66블록 1552가구를 22일 공급한다. 동탄2신도시 최초의 공공분양아파트로, 리베라CC 남측에 위치하며 14개동(12~29층), 전용면적 59~84㎡ 1552가구로 구성됐다.

동탄2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로변에 위치하며 단지로부터 약 2.5km 거리에 KTX동탄역이 예정돼 서울 등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KTX 광역환승센터, 중심상업지구 및 대형마트, 문화복합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가, 문화, 쇼핑이 가능한 워터프런트 콤플렉스와 바로 인접(최단거리 45m)해 일부 가구의 경우 호수 조망도 가능하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단지 바로 옆으로 초·중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 및 보육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전 가구 4베이 설계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V자형 단지 배치로 전 가구 조망



권 및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했다. 22일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일반공급 1순위, 29일 2·3순위 접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9월 당첨자 발표, 10월 계약 체결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엔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신형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년 8월 22일 예정) 기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다.

층간소음 저감 설계, 수납공간 최적화 역점



e편한세상 구미교리

대림산업은 다음달 중순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2지구 도시개발사업 A-1블록에서 'e편한세상 구미교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8층, 12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는 전용면적 59㎡ 327가구, 84㎡ 476가구 등 총 803가구 규모를 갖춘다.

'e편한세상 구미교리'에는 특허받은 단열설계 기술이 적용된다. 이 아파트는 내부와 외벽이 만나는 모든 부분에 공기층이 단열설계가 적용돼 결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또 층간소음 저감 설계도 적용된다. e편한세상 구미교리에는 표준보다 10mm 더 두꺼운 30mm 바닥 차음재가 적용되고, 거실과 주방 공간은 기존 20mm보다 3배 두꺼운 60mm 바닥 차음재를 적용했다.

전용 59㎡ A형은 3베이의 판상형 평면을 적용해 정방향으로 배치했다. 같은 평형 B형에는 4베이 구조로 설계돼 안방에 대형 워크인(Walk-In) 드레스룸과 'ㄷ'자대면형 주방이 들어선다. 또 C형은 3면 개방형의 타워형 평면을 적용해 채광 및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거실에 LDK(Living-Dining-Kitchen)평면을 적용해 아일랜



드형 주방이 설치된다. 전용 84㎡는 모두 3베이의 판상형 평면으로 방마다 수납공간의 최적화에 역점을 두고 평면 설계를 진행했다고 대림산업은 설명했다. 입주는 2016년 9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500만원이다. 모델하우스는 구미시 신평동 301-15번지 구미 롯데마트 앞에 마련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e편한세상 홈페이지(www.daelim-ap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문·창신·신설동역 '트리플 역세권' 입지



보문파크뷰자이

서울 성북구 보문로 13길 61번지 일대 보문 3구역을 재개발한 GS건설 보문파크뷰자이가 이달 말 분양에 나선다.

보문파크뷰자이는 지하 7층~지상 20층 17개동, 전용면적 31~84㎡ 총 1186가구 규모로, 이 중 45~84㎡ 48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공급으로 선보이는 주택형은 △45㎡ 161가구 △59㎡ 24가구 △72㎡ 147가구 △84㎡ 151가구 등 총 483가구로 구성됐다.

보문파크뷰자이는 6호선 보문역과 창신역, 1·2호선 신설동역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5·6정거장 안에 중로 일대 및 광화문에 닿을 수 있고, 보문로, 왕산로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직주근접형 단지여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설~유이 경전철도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어서 최적의 교통환경을 갖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이마트 정계점, 동대문 쇼핑타운 등 대규모 복합쇼핑센터가 가깝고,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휴식과 산책, 운동이 가능한 송인근린공원과 낙산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종묘, 창경궁, 청계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도 근처에 있다. 특히 보문파크뷰자이의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수영장이 들어서 수영장 프리미엄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커뮤니티 시설에 피트니스센터, 실내용프린트샵, 도서관,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보문파크뷰자이 견본주택은 보문역 인근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31번지에 마련되며, 이달 말 오픈 예정이다.



생활가전 빌트인 완벽 제공



한화건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지구에 '상암 오벨리스크 2차'를 분양하고 있다. 작년 5월 말 분양을 실시한 해당 오피스텔은 최고 25.5대 1, 평균 6.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 청약이 마감된 바 있다.

상암 오벨리스크 2차는 지하 3층~지상 10층, 전용면적 21~44㎡ 732실로 구성됐으며 전용 21~26㎡가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소형 오피스텔이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첨단기술로 실수요자 편의는 물론 DMC 직장인 수요로 수익형 오피스텔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문화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상암9단지)와 인접해 유해시설에 따른 소음 발생 등의 피해가 없어 주거환경이 매우 쾌적하다. 보통의 오피스텔들이 상업지구 내 위치해 주변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것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상암 오벨리스크 2차가 가진 뛰어난 상품성도 주목할 만하다. 한화건설은 입주자 및 세입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제품과 발발자갈, 신발장 등 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오피스텔이 적용하기 힘든 자주시주장(스스로 운전해 주차하는 방식), 홈네트워크 시스템, 태양광 발전 등을 갖춰 차별화했다.



전 가구 84㎡ 이하 '실속형'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

현대산업개발이 오는 28일 수원 아이파크 시티 단일블록 최대인 1596가구 규모의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를 분양한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7블록에 위치한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는 지하 3층, 지상 14~15층, 23개동 총 1596가구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A·B·C·D 1079가구, 74㎡ A·B 427가구, 84㎡ 90가구 등 7가지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LTV 70%, DTI 60%' 규제완화 정책 실시 이후 수원시에 첫선을 보이는 민간 아파트인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는 하반기 수원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서 단독으로 개발하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7000여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개발되는 민간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이번 4차 분양 물량은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 아파트로서는 마지막 입성 기회로 기존 공급된 단지와 다르게 전 가구를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복합문화공간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 Performance
- Concert
- Exhibition
- Launch show
- Convention
- Seminar and
- Wedding

PATIO 9

Banquet & Convention

파티오나인

연주회 및 공연

두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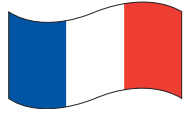
불가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경마는 도박 아닌 레저”... 佛 경마경기 37개국 수출



프랑스 ‘아하 드 자흐디’

“말을 탈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말을 타는 것을 좋아하지만 직업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 레저활동으로 평생 탈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 근교 유소년 승마클럽 ‘아하 드 자흐디’ 승마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레알 로드리게스(13·여)양이 기자를 만나 처음 던진 말이다.

로드리게스 양은 승마를 처음 접하는 유소년에게 “말 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며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경험할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이 승마장은 프랑스 승마 중 손꼽히는 곳으로 도시 근교에 있어 일주일에 약 3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승마를 즐기고 있다. 전체 면적은 75헥타르(ha)로 승마 220여마리와 25명의 교관이 승마를 즐기러 온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승마장 외에 풀로, 호스볼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파리와 인근지역 시민들에게 레저 장소로 주목 받고 있다.

이 승마장은 성인클럽과 어린이를 위한 포니클럽을 운영 중이며 포니클럽의 규모가 더 커 어릴 때부터 자연스



PMU 마권발매액의 배분구조(2012년)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유소년 승마클럽 ‘아하 드 자흐디 승마장’에서 주말에 10대 청소년들이 승마를 배우고 있다. (사진 위) 프랑스 파리 근교 생클라우드경마장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즐겁게 경마를 관람하고 있다.

경마 활성화... 600만명 즐겨
승마장 1년 이용요금 84만원
남녀노소 즐기는 국민스포츠
말고기 산업육성에도 힘쏟아

럽게 말과 친숙하게 만들어 건전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이 같은 승마장이 약 6400곳이나 있다. ‘아하 드 자흐디 승마장’ 같이 주로 어린이 승마를 위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이 프랑스 승마장의 특징이다.

이 승마장에 딸과 함께 온 루홍스 스루(47·여)씨는 “말이 생명체여서 교감하다 보면 아이가 폭력적이지 않고 성격이 차분해진다”며 “프랑스에서는 여자들이 승마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곳에 승마를 배우는 유소년의 90%가 여자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말만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돌보고 말똥도 스스로 치워야 해 남자아이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이 승마장의 이용요금은 일주일에 한 시간씩 1년 동안 600유로(약 84만원)를 받고 있다.

루홍스 스루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승마모자와 장화, 보호대 등 승마 기본 장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15유

로 정도면 충분히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재 프랑스는 어린이 승마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마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말산업 시장을 이끌고 있다. 프랑스 말산업 시장은 10년 전부터 연간 1~2%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6만7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냈다. 전체 인구의 10%가량인 약 600만명이 경마를 즐길 정도로 경마산업이 급성장했다. 경마상금 세계 4위, 마권 매출액 세계 3위 등 약 20조원에 육박하는 말산업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파리의 ‘생클루 경마장’을 둘러보니 왜 프랑스 말산업이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어린이들과 함께 나온 부모들이 정장차림으로 식사하면서 경마를 즐기는 모습은 상당히 이색적이었다. 프랑스 국민에게 경마는 단순히 도박이 아닌 레저로 인식이 잡힌 것이다. 레저라는 인식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경마 배팅 제한액이 없다. 특히 경마에 배팅하는 마권을 담배가게, 신문판매점, 주요소 등 어디에서

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권장외발매공사적인 PMU의 아메리 베르레 국제담당직사는 “프랑스에 1만2200개의 장외발매소가 있어 어디서든 마권을 사서 경마를 즐길 수 있다”며 “인터넷 발달 이후 2010년부터 온라인 상에서도 마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오히려 불법경마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PMU의 마권 매출액 중 인터넷 판매가 10% 수준으로 최근엔 휴대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 PMU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마 경기를 37개국(31개국은 배팅까지)에 수출하고 27개국으로부터 수입해 수출효자 산업으로 키워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는 말고기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아 프랑스 말고기 소비가 연평균 약 300만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가계당 연평균 2.5kg의 말고기를 구매하고 있어 말고기가 송아지 다음으로 가장 비싼 육류로 올라섰다.

파리=신동민 기자 lawsdm@



벨기에 ‘스테팩스 스테이블’

경마보다 승마... 체계적 승용마 조련 고부가가치 창출

7년 훈련 몸값 200배 경중
세계선수권 우승마 보유
연간 거래되는 말 1200두

경마보다는 승마 위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벨기에에는 체계적인 승용마 울해 4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후 몸값이 700만유로(약 98억원) 이상 치솟았다. “유럽의 한 거부가 이 말을 사려고 700만유로를 불렀지만 팔지 않았다”며 “다음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 말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스테팩스 스테이블 관계자가 귀띔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는 곳에 승용마 조련장 ‘스테팩스 스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다.

1986년에 설립된 이 승용마 조련장은 약 1만5000평 규모로 실내마장, 마방, 훈련루로, 모래원형마장, 잔디원형마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요사업인 승용마 조련과 판매, 말 수송차 제작·판매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스테팩스 스테이블’ 관계자는 “보통 3

세가락의 어린 승용마를 사들이거나 위탁받아 훈련을 통해 각종 승마대회에 입상시켜 승용마로서의 가치를 검증받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조련장에서 3만유로(약 4200만원)에 산 3세대 ‘코넷 다무르(Cornet Damour)’ 승용마는 7년간 훈련을 통해 올해 4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후 몸값이 700만유로(약 98억원) 이상 치솟았다. “유럽의 한 거부가 이 말을 사려고 700만유로를 불렀지만 팔지 않았다”며 “다음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 말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스테팩스 스테이블 관계자가 귀띔했다.

모래원형마장에서는 ‘코넷 다무르’ 승용마를 비롯해 3마리의 말이 조교와 함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현재 이 조련장에는 ‘코넷 다무르’ 승용마를 비롯해 세계선수권 우승마와 베이징 올림픽 장애물 경기 우승마 등 4마리의 대표적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다. 연간 거래되는 말은 약 1200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동행했던 최귀철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장은 “말은 다른 가축과 달리 생동물로서 경기능력을 개발, 함양시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6차산업임을 이 조련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말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라고 말했다.

현재 벨기에에는 경마사업이 연매출 2억달러에 되지 않을 정도로 레저 수준에서 즐기는 정도여서 경마보다는 승마 위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브뤼셀=신동민 기자 lawsdm@



코넷 다무르

필코 (주)필코인터내셔널 동부화재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1억원 가입

슈퍼밀리언 헤어라 쓰고 기적이라 읽는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뿌리는 순간
마술처럼 탈모, 대머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제, 외출도 만남도 즐거워집니다!

명품흑채, 슈퍼밀리언 헤어 -

슈퍼밀리언헤어 휴대용 세트
파격 할인판매!!
45,000원 → 29,000원

상담 및 주문 무료 전화 **080-582-0119** **취급점 모집**

사용 전

10초면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부분도 마술처럼 감쪽같이 커버됩니다!

사용 후

당첨 100%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 머리빠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신분
- 오랜 가발 사용으로 인해 답답하신 분
- 10년전 자신감을 원하시는 분
- 가르마 부위의 머리빠짐이 고민이신 분
- 안전한 흑채(중증제)를 원하시는 분

검정 No.1
흑갈색 No.2
갈색 No.3

용량: 60ml+10g

용량: 165ml+25g

국내최초, 흑채 임상실험 완료!! **안심!**

흑채를 사용하면 모공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겨 탈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파 自然派 club 헤어마인드 www.hairmind.co.kr **빠른배송 안심배송**

* 자연파(自然派) 클럽 헤어마인드를 방문하시면 필코의 다양한 천연성분 헤어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마 위주 한국 말산업, 승마와 균형발전 이뤄야



독일 '하노버협회'



독일 하노버협회

독일 베르덴 위치

- 직원 50명
- 등록회원 14,034명
- 독일 웹블러드 생산마 중 25.7% 차지
- 말등록현황 (2012)
 - 씨수말 478두
 - 암말 16,671두
 - 말아지 6,815두



말 3~4마리당 1명의 일자를 창출하는 승마선진국 독일은 승마산업 규모가 50억 유로(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하노버협회의 경매상장마 심사 모습.

말산업 육성 위해선

한국에선 말산업 떠올리면 귀족·도박 등 부정적 이미지 '대중레포츠'로 탈바꿈해야

정부가 말산업을 농업·농촌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자칫 좌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말산업 구조는 경마산업이 전체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 육성 기금이 대부분 경마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나오는 게 현실이다. 한국 말산업을 프랑스식의 경마·승마산업의 균형발전을 택할지 독일의 승마 위주 성장으로 발전시킬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이미 경마 위주로 말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프랑스식 말산업 육성이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형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사행산업으로 경마를 보기도 다 대중 레포츠로서 경마를 탈바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축산발전기금 201억 원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172억 원 등 총 373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지역별 승마장 신규 설치와 개보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1곳 추가 설치,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육용마 전문농장 육성 등에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승마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고급 스포츠로 여기고 있는 데다 경마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말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말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과점경마장을 국민 누구나 즐겁게 찾아와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경마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전국 장외발매소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를 뛰어넘는 지역 주민 친목의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다.

우리나라 경마 문화는 오랜 기간 승마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마 문화가 형성된 프랑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경마가 도박이 아닌 레저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말산업 육성은 절름발이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말산업 육성으로 2018년까지 1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농가 수익 증진에도 말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마사회에 따르면 말 한 마리가 연간 6000여만원의 부가가치를 만든데 이와 관련한 취업인원도 2011년 말 기준 1만8000여명이 넘는다.

문제는 말산업 육성 재원 대부분이 경마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마산업이 독일처럼 붕괴한다면 승마산업이나 말고기산업이 걸음마도 못 떼고 무너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동민 기자 lawsdm@

승마산업 7조 규모... 종자관리·경매로 '제2 황금기'

승마 선진국 독일은 말 3~4마리당 1명의 일자를 창출해 승마산업 규모가 50억 유로(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경마산업은 한때 28억 유로(약 3조 9000억 원)가 넘었다. 현재 1억 877만 유로(약 1370억 원)로 몰락했지만 말종자 관리와 말 경매 산업으로 눈을 돌려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 특히 독일산 경주마는 유럽 챔피언이 나올 정도로 유럽 정상급 수준이어서 말산업 육성의 발판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제2 말산업 황금기를 이끄는 곳은 독일 최대의 스포츠 호스(웹블러드) 민간 생산자 단체인 베르덴 하노버협회다.

독일 베르덴에 있는 하노버협회는 1735년 하노버 왕국 내 왕립목장으로 설립됐다. 1922년 민간 생산자 단체가 맡아 하노버말의 배양, 품종 관리와 승용마 선발, 말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하노버협회 베이나 사태 소장은 "하노버 품종은 1960~1970년대 유럽컵을 거머쥔 말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승용마 브랜드가 됐다"며 "연간 지역에 하노버 품종을 사고자 10만명이 방문해 3~4일 체류하고 있어 노동시장 개선과 말 관련 중간유통업체들이 주변에 생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챔프 출신 '하노버' 품종

승용마 브랜드로 세계적 인기

'마이크로 칩' 등 철저한 관리

경매 1년에 1000여마리 활발

또 사태 소장은 "협회 매출은 혈통 관리 수수료 수입에서 연간 600만~700만 유로, 말 교육 등 100만 유로, 경매 매출 2000만 유로의 10~15%가량이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 승용마의 60~70%가량이 하노버 품종이다. 독일의 승마 인구는 100만명으로 말은 170만 마리 중 98% 승용마이고 나머지 2%는 경주마다.

마린 슬렌더 하노버협회 대외협력담당은 "하노버 말의 특징은 승마용으로 쓰기에 적당할 정도로 날렵하고 온순하게 개량돼 하노버

지역에서 독일 승용마의 27%가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올림픽에 출전하는 하노버 품종은 모두 이곳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노버협회는 1949년 독일 최초로 경매를 시작해 1년에 9회 정도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4월과 10월에는 엘리트 말을 경매하는 스페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1회에 80~100마리가 경매돼 1년이면 약 1000마리가 거래되고 있다. 경매 낙찰 평균가격은 1만 4000~1만 5000유로이지만 엘리트 말은 3만~4만 유로 사이다. 낙찰된 말 가운데 40%가량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북유럽, 멕시코, 중국 등 해외로 나간다.

사태 소장은 "2011년 당시 엘리트 말 경매에서 3세 말이 90만 유로에 낙찰돼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새끼말들을 경매하는 소경매는 2주에 1회가량 이뤄지는데 독일 농가 평균 씨암말 사육두수는 1~2마리로 대부분 취미로 사육하고 있다. 새끼말을 경매시장에 내놓고자 하노버협회에서 망아지 품평회에 참여하는 농가의 모습도 가족이 함께와 지켜보는 모습에서 말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에어트빅 홀스테 하노버품종 혈통관리자는 "하노버종은 18~19년간 승마를 할 수 있어 태어

날 때부터 혈통관리가 철저히 이뤄진다"며 "이력책과 DNA 검사를 통해 말마다 고유번호가 찍힌 마이크로 칩 삽입과 낙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말산업 육성에 대해 사태 소장은 "88서울올림픽 때 독일에 금메달을 안긴 말이 한국으로 간 후 다 망가졌다"며 "말산업의 가장 큰 손실은 알지 못하고 트레이닝하는 것이어서 말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확립과 유기적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독일 정부는 청소년 위주로 승마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독일엔 만 26세 이하가 회원 중 50%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의 모든 등록 스포츠 중 7~12세 연령대에서는 세 번째, 15~26세 연령대에서는 두 번째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승마클럽은 7673곳이 있으며 연간 승마비용은 26억 유로 정도다.

급성장하고 있는 승마산업에 비해 경마산업은 독일 내 마권발매업체 대부분이 민간이 맡으면서 몰타, 지브롤터 등 조세회피처로 도피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슬롯머신의 급속한 보급으로 경마산업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베르덴=신동민 기자 lawsdm@

ELLE
TIME & JEWELRY

내달 6일부터 모집...학생부·논술·실기 위주 간소화

수학과 교차지원...전형간 중복도



최병우 입학처장

건국대학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3개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정원내와 정원외 모집인원을 합한 총 1901명 중 1127명으로 전체 59%를 차지한다. 모든 학과(전공, 학부)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병우 입학처장은 "예·체능계열을 포함해 문과 학생이 자연계열, 이과 학생이 인문·사회계열의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며 "면접고사일 또는 실기고사일이 겹치지 않을 경우 여러 전형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또 학생부종합전형을 지난해 3개에서 5개로 확대했고, 모집인원도 210명에서 309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을 지난해 119명 모집에서 올해는 52명 증원해 171명을 모집한다.

전년도에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했던 '국가(독립)유공자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인 'KU고른기회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로 전형방법과 명칭을 변경했다. 여기에 서해5도 학생 지원 자격을 추가, 전년도 모집인원 10명에 비해 32명이 증원돼 총 42명을 선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도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형방법을 간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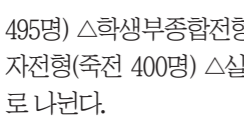
올해에는 학생부전형의 수능 우선선발 방식을 폐지하고 일반선발 기준으로 통합해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반전형, 스포츠우수인재전형,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는 면접고사도 전년도까지 일반영역과 학업영역 2개 영역에서 각 3문항 중 1문항씩을 선택해 답변하는 방식에서 올해는 일반영역 5문항 중 2문항을 선택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등으로 간소화된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우선 선발이 폐지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수능 전후 2회로 나누었던 원서접수 시기도 통합돼 다음달 6일부터 18일까지 각 대학별로 모집한다.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는 수능 결과를 보고 성적에 맞춰 수시를 지원할 기회가 있었지만 올해는 수능 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시에 지원할 목표 대학을 사전에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김민수·유혜은 기자 tearand76@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없애고 서류 100% 선발



이병인 입학처장

단국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으로 2167명(죽전캠퍼스 1254명, 천안캠퍼스 913명)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전형은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죽전 380명, 천안 495명) △학생부종합전형(죽전 412명, 천안 238명) △논술우수자전형(죽전 400명) △실기위주전형(죽전 62명, 천안 180명)으로 나뉜다.

단국대에 따르면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의 경우 학생부 100%를 반영하므로 학생부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학생부 100% 전형은 학생부 평균등급이 타 전형에 비해 높지만 등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학생부종합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면접고사를 폐지하고 서류평가만으로 학생을 뽑는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종합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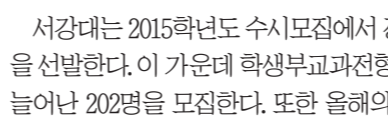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40%, 논술 60%를 일괄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는 1-6등급까지 등급 간 점수가 1점 차이이고, 올해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이 폐지돼 실질 반영비율은 논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문과 자연 2개 계열로 나뉘어 논술고사가 실시되며, 건축학과(5년제)의 경우 인문계열 논술을 반영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문계열 논술은 인문, 사회영역에서 출제되고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 일반과 학영역에서 출제된다.

이병인 입학처장은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고사의 실질 반영비율이 높다"며 "학생부 교과성적은 1-6등급까지 등급 간 점수 차가 1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술고사는 인문계열은 통합교과형 3문항, 자연계열은 수학 2문제, 과학 1문제가 출제된다. 건축학과는 인문계열 논술을 반영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최저기준 상향...특기자전형 교차지원 가능



김명수 입학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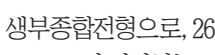
서강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내 기준으로 1086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은 전년도 대비 약 50% 늘어난 202명을 모집한다. 또한 올해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다소 상향 조정됐다. 서강대에 따르면 인문계의 경우 3개 영역 함께 각 2등급, 자연계의 경우 2개 영역(수학B, 과학탐구 중 1개 영역 반드시 포함) 함께 각 2등급이다. 서류는 25% 반영한다. 이에 대해 김명수 입학처장은 "수능시험 이후 지원자가 서류제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다면 전통적 의미의 내신 우수자가 아니라도 지원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특기자전형은 외국어특기자, 수학/과학특기자, Art&Technology특기자전형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김 처장은 "외국어특자자는 단순히 어학만 잘

하는 학생보다 학업능력, 발전 가능성, 어학능력 등의 종합적인 평가로 지원자의 역량을 서류를 통해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학/과학특기자의 경우 자연계 전 전공과 경제, 경영,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모집한다. 반면 Art&Technology특기자는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기획력 및 창의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김 처장은 "특기자전형 3가지 역시 학생부종합과 마찬가지로 활동보충자료로 본인의 역량을 좀더 구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학생부종합과의 차이는 교내·외 수상실적이나 공인어학성적 등을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기자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모든 면접은 일반면접으로 별도의 문제를 내지 않는다.

학생부전형 수능최저기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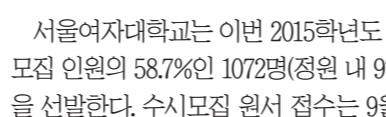
김현규 입학홍보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남궁근)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2443명의 61.5%에 해당하는 1502명을 수시전형으로 모집한다. 20일 서울과학기술대에 따르면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68.2%에 해당하는 1024명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26.2%에 해당하는 338명은 논술전형으로, 5.7%에 해당하는 85명은 실기전형으로 선발한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는 이번 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논술전형에서는 인문계열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2과목 등급 평균)영역 응시자 중 2개 영역 함께 5등급 이내, 자연계열 국어A, 수학B, 영어, 탐구(2과목 등급 평균)영역 응시자 중 2개 영역 함께 6등급 이내(단, 수학B 반드시 포함)로 지난해보다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험생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형 간 복수지원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모두 499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성적 60%와 서류 평가 40%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전공우수자전형은 모두 157명을 선발하며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평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김현규 입학홍보본부장은 "이 외에도 자기추천자전형은 총 86명을 선발하며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활동보고서, 교사추천서를 토대로 지원자의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3배수를 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어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라고 덧붙였다.

논술우수자전형 논술 70%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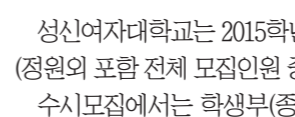
박진 입학홍보처장

서울여자대학교는 이번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58.7%인 1072명(정원 내 977명, 정원 외 95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형 명칭과 전형 방법이 간소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학생전형 418명, 학생부종합평가전형 255명, 논술우수자전형 150명 등을 선발한다.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70%, 서류 종합평가 30%를 합산해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전년도보다 완화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학년별로 가중치 없이 똑같이 반영되며, 서울여대 입학관리팀 홈페이지의 '성적 산출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다. 학생부종합평가전형은 단계별 전형이다.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60%)와 면접 점수(40%)를 합산해 총 255명을 선발한다.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서울여대 박진 입학홍보처장은 "학생부종합평가전형으로는 관심 분야를 깊이 탐색하고 실전을 하면서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며 "면접은 인문·사회·자연 계열 학과는 발표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을 한다. 현대미술과와 산업디자인학과는 일반 면접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반영비율이 전년도 50%에서 70%로 확대됐다. 논술 성적(70%)과 학생부 교과성적(30%)을 합산해 선발한다. 논술고사는 통합 교과형 문제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맞춰 사교력, 논리적, 이해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된다. 서울여대는 또 기독교지도자전형에서 기독교학과 30명을 선발한다. 목회자추천서와 세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성따라 유리한 전형 선택지원



김경규 입학처장

성신여자대학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235명(정원의 포함 전체 모집인원 중 52.6%)을 모집한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특기자/실기전형으로 구분해 실시하는데 학생부, 실기, 서류평가, 면접 등 각 전형마다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으로 확고한 목표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 전공분야 진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 전년도 성신체인지전형과 성신자기주도형인재전형의 2개 전형을 통합, 학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 총 454명을 선발하고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기회균형선발 총 12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험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2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인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김경규 입학처장은 "1단계 학생부종합평가는 교과 내신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하지 않는다"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 대해 인성, 학업역량, 성장잠재력의 세 가지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2단계 평가대상자로 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2단계 심층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사범대학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해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 역량의 세 가지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한다. 2단계 교직직·인성평가는 사범대학 모집단위에 한해 추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전에 원서접수... 나에게 맞는 전형 찾아야



미래인재·논술전형 우선선발 없애



송실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학생부 전형은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SSU미래인재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특성학교졸재직자(정원 내·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 외)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 외) 전형 등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에게 공인어학성적, 올림피아드 입상실적, 해외봉사, 영어면접 등 소위 '스펙'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교육과 관련한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별도의 포트폴리오도 받지 않는다. 1단계에서 서류 100%를 반영해 3배수를 거르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전형인 학생부우수자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반영한다. 예체능우수인재 중 문학, 축구, 체육, 골프 분야는 실적 60%와 면접 40%를 활용하며 영화예술전공에서는 실적 60%와 학생부 40%가 활용된다.

SSU미래인재 전형과 논술우수자 전형에서는 우선선발이 폐지됐다. SSU미래인재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로 선발한다.

정진석 송실대 입학처장은 "학생부 우수 전형의 모집인원을 대폭 늘렸고, 학생부 반영을 내실화했다"며 "학생부에 강점이 있는 수험생은 수시모집에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시모집 원서는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다.



정진석 입학처장

공인어학·대외수상 기재 땀 '0점'



연세대학교의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위주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257명)과 학생부종합전형(373명)으로 구분된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평가하여 면접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및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교과 70%와 비교과 30%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변혜란 연세대 입학처장은 "지원자가 고등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학업 성취를 포함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공인어학성적이나 대교협에서 지정한 교외 경시대외 실적을 기재할 경우 '0점' 처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학생부 교과영역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지원자가 이수한 모든 과목을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은 인문계 또는 자연계 구분 없이 지원자가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모든 과목을 표준화된 석차분율로 70%, 그 이외의 과목은 30% 반영하며 9등급일 경우에만 감점한다.

비교과영역에서는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교외 수상실적, 그 외 국내외 재학 중 취득한 AP-SAT 성적, 사설기관과 연계된 해외봉사활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9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변혜란 입학처장

적성고사 폐지...예체능 제외 '최저학력기준' 적용



울산대학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정원 2841명 가운데 60.5%인 1718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인터넷(<http://www.ulsan.ac.kr>)으로만 가능하다.

올해 울산대 수시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실시했던 적성필답고사가 폐지되고,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수시모집 대부분 모집단위에서는 학생부 100%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1과목)·과탐(1과목) 중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면 충족된다. 국제학부, 경영학부, 간호학과는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한다.

기계·조선해양·전기·화학공학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의 합 6등급 이내이다.



강태호 입학처장

예체능 계열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없이 실기고사 위주로 선발한다.

강태호 울산대 입학처장은 "전년도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 기계·조선해양·전기·화학공학부는 입학생의 학생부 성적이 상승할 예정이며, 나머지 모집단위에서는 입학생의 학생부 성적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UOU프린터 특별전형은 학생부 70%와 면접고사 30%를 반영하여 100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거나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예과는 학생부 60%와 논술 40%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 일반전형으로 20명,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4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전형' 대신 1.5~2등급 이상 합격선



이화여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으로 1931명을 모집한다. 지원전형은 △논술위주 △학생부위주(종합) △실기·특기위주 선발전형 등 4가지이다.

올해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지원자와 합격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미래인재 전형'은 교과 및 학교 활동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다양하게 개발한 보편적인 학교생활 충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자와 가계곤란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고른기회전형', 민주화운동자녀, 직업군인, 다자녀 가구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전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일부 지원자격에 따라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은 계열별로 구분돼 반영된다. 대략 전체 평균내신 기준 1.5~2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합격선은 그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남궁곤 입학처장

수시의 논술형 일반전형에서는 우선선발 단계가 폐지된다. 단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체 모집인원, 600명 전원에게 적용해 선발하므로 논술고사의 변별력이 다소 강해질 예정이다.

특기자전형에서는 어학, 수학·과학, 국제학부, 체육 우수자를 선발한다. 수학·과학은 올해 신설된 전형으로 의예과 8명을 포함한 50명의 학생을 관련 모집단위에서 선발하며, 어학은 65명의 학생을 어학분야에 우수한 역량 및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선발한다.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다양한 신입생 장학제도를 마련, 작년의 경우신입생의 50%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인터넷(<http://www.uwayapply.com>)으로 할 수 있다.

산업보안·SW 특성화 학과 신설



중앙대학교는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 5013명의 63%인 3156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 △논술전형 △실기전형 △특기자전형으로 간소화해 수험생·교사·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재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고자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여 수시모집 인원의 54%인 1708명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며,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다.

이산호 중앙대 입학처장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신설했고, 기존의 '다변치형인재전형(입학사정관제)'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하며 "수시 모집인원의 54%인 1708명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므로, 이전보다 학교생활과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덧붙였다.

중앙대는 최근 각종 산업 분야에서 보안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특성화 학문단위인 산업보안학과, 소프트웨어전공을 신설했다.

산업보안학과는 2015학년도부터 40명을 선발하게 되며, 우수학생(수시 학생부,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 정시 일반전형 합격생 전원)에게는 4년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소프트웨어전공 역시 올해부터 신입생 40명을 선발하며 대학 측에서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삼성전자, LG전자 산학협력으로 선발되면 3·4학년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각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으며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원서접수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시한다.



이산호 입학처장

학생 소영역 인재상 종합평가



가톨릭대학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전형 등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51.75%인 총 931명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가톨릭대는 전공적성우수자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인 학생부우수자전형을 신설했다. 단계별 전형을 통해 총 357명을 선발한다. 1단계는 학생부 100%로 모집인원의 4배수 내외를 선발한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잠재능력우수자전형 165명 △스테파노전형 72명 △교육기회균등전형 122명 △특성학교졸재직자전형 20명 △특수교육대상자전형 10명 △특성학교교졸업자전형 9명 등을 선발한다. 각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는 서류평가 100%, 2단계는 서류평가 80%와 면접평가 20%가 반영된다.

이창우 가톨릭대 입학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기약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가톨릭대는 2015학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시에서 △논술우수자전형 15명 △학교장추천전형 19명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1명 등 총 35명을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원서접수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www.jinhakapply.com)으로 가능하다.



이창우 입학처장

특성화 7개 학과 전액 장학금



한양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등을 통해 총 2897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우선선발 제도를 없앴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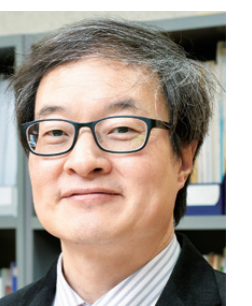
배영찬 한양대 입학처장은 이번 수시모집에 대해 "전년도에 8개나 됐던 수시전형을 4개로 간소화하며 입시에 많은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특기자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배 입학처장은 "학생부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교과성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기자전형에서는 수험생의 인성·언어구사능력을 평가한다. 두 전형 모두 2인 이상의 면접관이 1명의 학생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일반면접)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나 제출서류 없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무엇보다 교내 활동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논술전형은 학생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과성적(내신)을 반영하지 않으며, 출결·봉사활동 등의 학생부 내용을 종합평가한다.

특히 특성화 학과를 '다이아몬드 7과목'로 묶어 전액 장학금 지급, 취업 보장, 재학 중 해외어학연수, 해외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7개 학과는 △융합전자공학부 △소프트웨어 전공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정책학과 △행정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등이다.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http://go.hanyang.ac.kr>)를 통해 진행된다.



배영찬 입학처장

국내상장 중국株 “땡호와”

中 경기회복 힘 입어 ‘어닝 서프라이즈’... 완리·차이나하오란 등 급등

한국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호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완리는 전일 대비 14.96%(555원) 올라 4265원을 기록하며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이날 하루 외국인은 6300만여어를 사들이며 주가를 견인했다. 이밖에 차이나하오란 7.92%(150원), 차이나그레이트 4.44%(160원), 씨케이에이치 5.12%(210원), 에스엔씨엔진그룹 3.63%(110원),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72%(45원), 중국원양자원 2.12%(25원) 등으로 상승 마감했다. 씨케이에이치(7500만원), 에스엔씨엔진그룹(5400만원), 차이나하오란(2000만원), 이스트아시아홀딩스(1500만원) 등도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에 일조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다. 전일 완리는 지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88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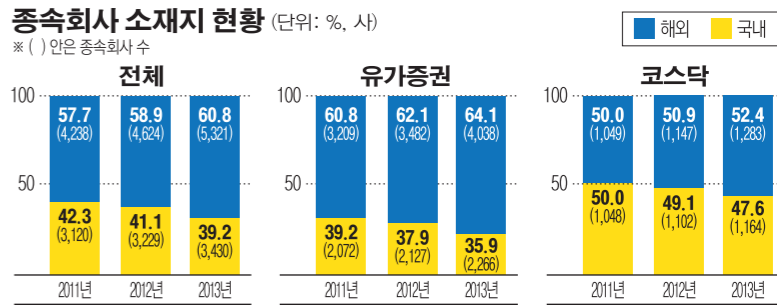


239억원, 18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완리에 대해 “1분기 완만한 실적 개선에 이어 2분기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달성했다”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차이나그

레이트, 차이나하오란 등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차이나하오란은 증권사들로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시작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경기 회복세도 주가 견인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중국 세관적인 해관총서는 지난 8월(현지시간) 7월 무역수지 흑자가 473억 달러(약 49조1163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 274억 달러를 넘어서고, 전월의 316억 달러에서 급증한 수치다. 특히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이 크게 늘고 수입은 줄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가 올해 중국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 7.5% 달성도 현실화시킬 것이라는 분위기와 함께 주가도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황윤주 기자 hjy@



대기업, 해외 자회사 늘었다

종속회사 비중 60.8%

상장법인의 해외 종속회사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종속회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의 종속회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해외 종속회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외 신규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3 회계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1594개사 가운데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214개사로 76.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의 73.4%에서 2.8%p 상승한 수치다.

전체 상장지배회사의 종속회사수는 8751개사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상장지배회사의 1개사당 평균 종속회사는 7.2개사로 전년 대비 0.5개사 늘어났다. 특히 대형사가 많은 유

가증권시장의 경우 10.8개사에서 12.1개사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 소재 종속회사의 비중은 60.8%로 전년 대비 1.9%p 증가하며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결투자사 상위 100개사의 해외 종속회사는 아시아가 50.9%로 가장 많았고, 미주 25.6%, 유럽 18.1%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해외종속회사의 27.0%는 중국에 소재하고 있었다.

지난 2013년에 양국간 무역규모 확대와 FTA 추진 등으로 중국 비중이 2.1%p 증가했다.

박희준 회계감독1국 국장은 “해외 소재 지국의 회계감독이 취약할 경우 연결회계 정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해외종속회사 소재지별 감독수준-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험이 큰 지역의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에 기자 sysy@

‘삼성’ 쏟아낸 투자자... ‘애플’ 담는다?

‘아이폰6’ 기대감에 러브콜 개인, 삼성株 1574억 매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애플’을 향한 국내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뜨겁다. 과거 달리 해외의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데 스마트폰 시장의 라이벌인 삼성전자가 실적악화로 부진한 주가흐름을 보이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애플에 쏠리는데 따른 것이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2일-8월19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 종목은 애플로 총 1604억여어치 사들였다.

국내 투자자들이 애플 주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애플의 탄탄한 실적과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애플은 회계연도 3분기(4-6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77억4800만달러, 당당 1.28달러를 기록했다. 하반기 매출이 출시되는 신제품들로 인한 매출 신장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애플은 오는 9월 ‘아이폰6’를 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워치인 ‘아이워치’도 올해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는 애플

기간별 주식 매도매수 현황 (단위: 주, 백만원)

순위	종목명	거래금액	거래량	유통국가
1	애플	160,479	335,330	미국
2	아이제어즈 유로	148,282	942,296	영국
3	FS TR DJ INTERNT	101,241	1,693,559	미국
4	테슬라	96,633	433,590	미국
5	S&P 주식예탁증서	78,686	399,454	미국
6	CHINAAM CS800 INDEX ETF	65,282	17,063,000	홍콩
7	PICC PROPERTY AND CASUAL	64,931	42,959,481	홍콩
8	넥스	62,273	6,730,345	일본

플의 아이워치가 판매 첫해에만 6000만대 이상이 팔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이같은 판매호조로 2015 회계연도 매출이 90억달러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플의 주가는 이러한 호재들을 충분히 반영하며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올들어만 25%나 상승한 것. 19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전일 대비 1.4% 상승한 100.53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애플 주가가 100달러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6월 7대 1 주식분할 이후 처음이다.

애플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애플의 라이벌사인 삼성전자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올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574억여어치 팔아치웠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엇갈린 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애플과 달리 삼성의 경우 올해 3분기에 7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서원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 중저가 휴대전화 판매를 확대하며 수량은 증가하겠지만 평균판매단가(ASP)는 하락할 전망”이라며 “3분기에도 모바일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선영 기자 moon@

삼성자산운용, 中본토쿼터 모두 소진

6개월만에 1억달러

삼성자산운용은 6개월 만에 중국본토 쿼터 1100억원(1억달러)을 소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중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를 모두 소진한 것이다. 투자자금은 ‘삼성 중국본토중소형포커스 펀드’로 690억원, ‘KODEX ChinaA50’에 410억원 들어왔다.

삼성 중국본토중소형포커스 펀드는 중국의 신성장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KODEX ChinaA50은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 기준 50위 안에 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삼성자산운용이 중국 본토 투자한도를 모두 소진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삼성운용 관계자는 “1분기 중국경제가 7.5% 성장했고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며 “특히 중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건설업 소비전직, 친환경, 인구 노령화 대응과 관련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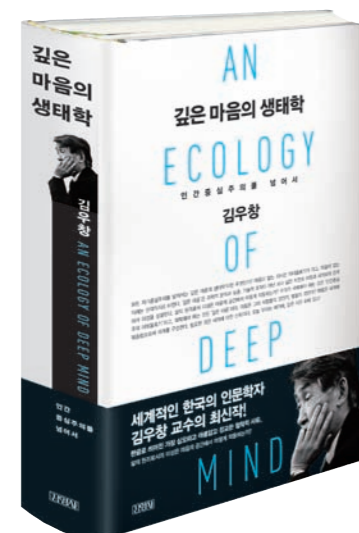
중국본토 주식시장은 내국인 전용시장인 A시장과 외국인 전용 B시장으로 구분된다. A시장은 중국정부로부터 QFII(외국인투자자) 자격을 부여받고 한도(Quota)를 승인받아 투자할 수 있다.

삼성운용은 2008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4억5000만달러 투자를 승인받아 소진했으며 이번 투자로 투자금액은 총 5억 5000만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마음은 그대 사람들의 것인가, 별들의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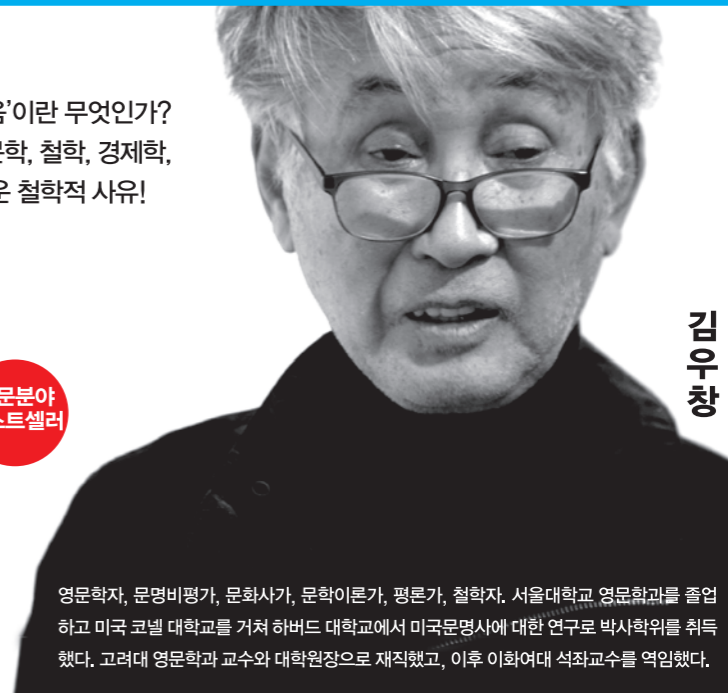
이성은 마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석학 김우창의 강철 같은 사유가 펼쳐내는 깊은 마음의 구조에 대한 놀라운 탐구!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생물학 등을 총망라한 압도적 지식, 눈부신 통찰을 통해 동서양 최초로 ‘이성과 마음’의 문제를 생생하게 파헤치다. 한글로 씌어진 가장 심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사유!



깊은 마음의 생태학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 AN ECOLOGY OF DEEP MIND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김우창
언론학자, 문명비평가, 문화사학자, 문학이론가, 평론가, 철학자. 서울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문학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와 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세계적인 한국의 인문학자 김우창 교수의 최신작!

인간의 이성과 마음, 자연과 세계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찰한 역작! 김우창 교수의 사유 세계는 고대와 근대와 현대가 서로 비추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장이며, 우리의 궁색한 생각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잡이가 되어준 통찰의 등대이다. 도정일(경희대 후버니타스칼리지 대학장) | 선생의 주옥같은 글들은 한글로 쓰여지는 글로서 이를 넘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글에 담긴 지식과 지혜의 깊이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조차 최고의 수준이다. 최창집(고려대 명예교수) | 이 땅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독자들이라면, 김우창이라는 신을 결코 놓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문광호(충북대 독문과 교수)

김우창
TEL. 031-955-3200 www.gimyoung.com
책이 세상을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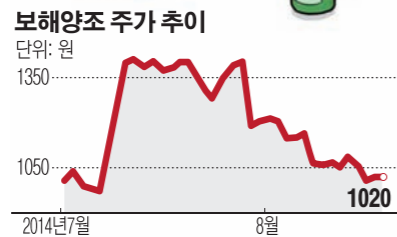
김우창
양장 | 516쪽 | 27,000원



‘섞어 마신’ 보해양조... 이번엔 자회사에 ‘한턱’

부실 계열사 합병 이어 보해매원 42억 유증 참여... 주가 추가하락 우려

보해양조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 보해매원에 자금을 수혈한다. 지난달 부실 계열사 합병에 이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해매원 주식 4만6925주를 42억2325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8.19% 규모다. 보해매원은 보해양조와 매실 등을 거래하는 계열사다.



보해양조 주가 추이
단위: 원
2014년 7월 1020 8월 1020

보해양조가 보해매원에 자금을 지원 하는 이유는 재무구조 개선이다. 보해매원은 지난 2011년 11억1811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2년 4억 5738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또 다시 2억2002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계열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해양조는 지난달에도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합병을 진행했다. 보해양조는 지난달 29일 보해B&H와 합병비를 1대 2.2734026, 보해통상과 합병비를 1대 4.6485884로 흡수합병

을 결정했다. 보해양조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이 계열사를 합병할 때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소멸회사 주식과 교환한 뒤 피인수 업체 주식을 소각하는 유증자합병 방식을 택했다.

유증자합병의 경우 자사주 처분 시

회계상 감액 손실에 대해 법인세 절감 등의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될 경우 자본거래로 간주돼 주식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시 보해양조는 세제상 혜택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하락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내림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보해양조의 계열사 지원이 또 다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해양조의 합병과 자금 수혈은 계열사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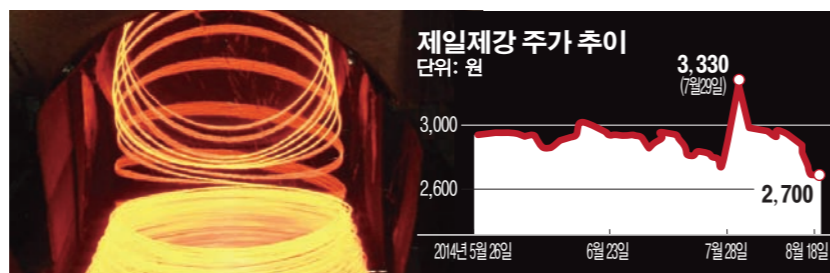
다만 보해양조가 현재 생산 공장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모기업 장혜에탄율이 상장을 통해 자금 여력이 있다는 것은 보해양조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신제품 선보인 제일제강 “하반기 턴어라운드”

‘코일형 철근’ 판매 돌입 상반기 적자폭 94% ↓

제일제강이 신규 제품인 ‘코일형 철근(Bar in-coil)’의 판매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손실규모도 크게 줄고 있어, 하반기 턴어라운드도 예상하고 있다.



제일제강 주가 추이
단위: 원
2014년 5월 2,700 6월 2,700 7월 2,700 8월 3,330

20일 제일제강 관계자는 “이번 달에 코일형 철근의 최종 시험생산을 마치고 판매에 돌입했다”며 “9월부터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일형철근은 기존 직선철근 대비 가공 손실률이 낮아 철근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 직선철근에 비해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며 국내 공급사는 한 곳에 불과했다.

제일제강은 기존 50년간 영위해 온 철근사업 네트워크를 이용해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일제강은 이형철근전문 제조업체였

으나 지속되는 건설경기 하락에 2010년부터 선제전환업체로 탈바꿈을 시도, 지난해부터 건축자재인 연강선재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규개발 아이템 공급으로 인한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동남아 및 중동 지역에 수출비중을 늘리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급격한 매출증가가 예상된다.

또 지난해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고단가의 원자재 부분을 수입산대비 10% 이상 저렴한 단가의 포스코 및 현대제철로부터 공급받는 등 국내 조달비중을 늘렸다. 이는 손익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격 판매에 돌입한 코일형철근과 하

승영록 기자 syr@

반기 판매를 앞둔 경강선재 등의 신규아이템도 매출증가와 더불어 수익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규아이템은 연강선재 대비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한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내다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신제품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실적 개선은 확실하다”며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34억원의 적자를 냈던 제일제강은 올해 같은 기간 1억 9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이 무려 94% 줄어든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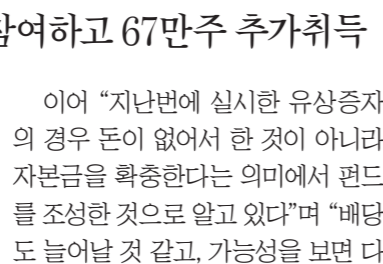
한편 에이티넬스트먼트는 유망중소·벤처기업의 조기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사다. 중소기업청 선정 9년 연속 최우수 운용사로 신뢰성과 운용성과 측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최대주주는 1조 거부로 알려진 이인주 회장이 이끄는 에이티넬과 트너스로 보유지분은 32.14%이다.

황윤주 기자 hjy@

‘주식농부’ 박영옥 ‘에이티넬’ 사고 또 사고

“하반기 실적호조”... 유증 참여하고 67만주 추가취득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에이티넬인베스트 지분을 추가로 늘렸다. 하반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데 이어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에이티넬인베스트 주가 추이
단위: 원
2014년 4월 1,295 5월 1,295 6월 1,295 7월 1,295 8월 1,506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 대표는 에이티넬인베스트 주식 67만9853주(0.52%)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로써 박 대표의 에이티넬인베스트 지분율은 7.21%에서 7.73%로 증가했다. 박 대표는 지난 7월 에이티넬인베스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11년 투자한 펀드가 올 하반기부터 차익을 실현할 것 같다”라며 “코넥스 상장기업 2개 가 코스닥으로 상장할 예정이고, 하반기부터 벤처 회사가 3분기부터 실적도 모두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실시한 유상증자의 경우 돈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당도 늘어날 것 같고, 가능성을 보면 다 장투사보다 전망이 좋아서 투자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티넬인베스트먼트는 멀티 클로징을 통해 2030억 원 규모의 에이티넬고성장기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약 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국내 벤처투자업계에서 2000억원대 벤처투자펀드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실시한 유상증자는 이 펀드의 캐피탈 풀 집행을 위한 것이다.

에이티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여유로운 자금 운용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에 나선 것이 맞

고, 특정산업에 투자가 한정된 것은 아니다”며 “박 대표께서 장투사 상장사 중 우리가 투자를 잘 한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티넬인베스트먼트는 유망중소·벤처기업의 조기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사다. 중소기업청 선정 9년 연속 최우수 운용사로 신뢰성과 운용성과 측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최대주주는 1조 거부로 알려진 이인주 회장이 이끄는 에이티넬과 트너스로 보유지분은 32.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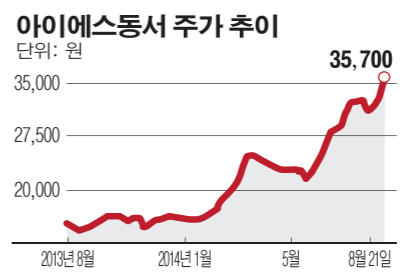
황윤주 기자 hjy@

공시 돋보기

4월 400억 이어 이달 330억... 잇단 CB발행

아이에스동서 ‘M&A 돈줄’ 찾나

간혹간재 업체인 아이에스동서가 연이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삼흥테크, 한국렌탈, 아이에스해운 등을 인수하며 수평적·수직적 계열화를 진행한 아이에스동서가 다시 한 번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지 주목된다.



아이에스동서 주가 추이
단위: 원
2013년 8월 20,000 2014년 1월 20,000 5월 20,000 8월 21일 35,700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전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했다.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연 6.45% 조건이며 전환가격은 3만4380원, 전환청구기간은 2015년 8월 28일부터다. 엔에이치아주이비중소중견건교소201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30억원, 한국산업은행강남지점이 100억원 인수할 예정이다.

아이에스동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SBI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지난 2008년 부산의 일신건설산업이 동서산업을 합병하면서 탄생한 아이에스동서는 M&A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2010년 비데전문화사인 삼흥테크를 인수한 데 이어 2011년 한국렌탈을 인수하면서 수직계열화했으며, 아이에스해운을 인수하며 수평적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아이에스동서 사업도 건축(매출비중50%), 요업(16%), 콘크리트 파일(18%) 등으로 다각화했다.

최근에는 KTB 프라이빗에쿼티(KTB

PE)가 매물로 내놓은 국내 콘크리트 펄프트럭 1위 제조업체인 전진중공업 인수를 전이 뛰어 들었다. 매각가는 2000억원 내외로 건축부분의 수직계열화 측면이다.

아이에스동서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는 결국 부산 용호동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지하 6층-지상 69층 4개동에 전용면적 98-244㎡ 1488가구 규모로 분양액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영업이익이 약 6000억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호 이트레이드 증권 연구원은 “부산 용호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이 아이에스동서의 관건”이라며 “레버리지를 통한 사세확장은 이뤄졌고 주가는 반등을 했고 이제 현금회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드래곤플레이 주가 추이
단위: 원
2014년 4월 4,120 5월 4,120 6월 4,120 8월 21일 9,960

주가급등 드래곤플레이 자사주 50만주 처분한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게임업체 드래곤플레이가 미려떡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각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드래곤플레이는 자사주 50만주를 주당 1만100원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예정금액은 50억5000만원이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1월 20일 까지다.

자사주 처분 목적은 모바일 게임 개발 투자금 마련이다. 최근 게임 시장의 트렌드가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따라 모바일 게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실단을 준비하는 것이다.

앞서 드래곤플레이는 지난달 30일 네시삼십삼분(4:33)과 모바일 일인칭 슈팅(FPS) 게임 ‘프로젝트 SF’의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젝트 SF는 드래곤플레이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스페셜포스의 지적재산(IP)을 활용해 제작하는 모바일 게임이다.

특히 드래곤플레이의 자사주 매각은 주가가 고평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결정돼 관심을 끈다. 이번 결정은 주가 상승세에도 자사주를 매각해 향후 떡거리를 발굴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드래곤플레이는 중국 출시 게임의 흥행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 주동안 44.38%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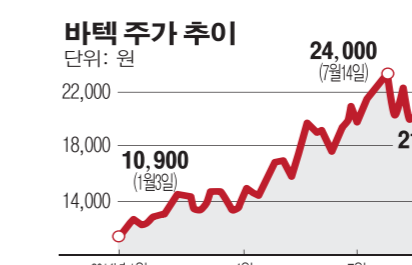
지난 6월 23일 기록한 52주 신저가(4120원)보다는 141.75% 상승했다. 드래곤플레이는 중국의 바이두와 손잡고 중국 현지에서 출시한 모바일 레이싱게임 ‘가속스캔들(중국명 차신 3D 폭력광표)’이 지난달 말 33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드래곤플레이는 지난달 21일에도 자기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6억3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했다. 처분 주식은 보통주 14만주이며 주당 처분가는 4500원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자사주 전량처분’ 바택, 시설투자 올인

차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및 CT 개발-제조 업체 바택이 주력사업의 생산능력(CAPA) 확대와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7억원 가량의 투자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자사주) 전량을 처분하면서 자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바택 주가 추이
단위: 원
2014년 4월 10,900 5월 10,900 6월 10,900 7월 10,900 8월 21일 24,000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바택은 전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20만주 전량을 주당 2만1535원에 장외처분했다. 이로써 바택은 43억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 측은 “생산라인 증설 및 연구시설 투자(건물신축)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택은 지난 6월24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 시설투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투자금액은 236억9000만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22.6%에 해당한다. 투자기간은 다음날인 25일부터 오는 2015년 11월28일까지다.

바택 관계자는 “투자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전량을 기관에게 장외 매도했다”며 “현 주가 대비 주당 처분 가격이 낮지만, 기관투자자가 자금 증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투자에 나선 것으

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시설투자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일부와 금융권 차입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신규 시설투자는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덴털 사업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물 신축을 위해 회사 옆 토지를 미리 취득했다”면서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40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택은 지난 2분기 독일·중국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대폭 개선됐다. 바택은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0억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8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ngih@

2014년 여름 바야흐로 휘센의 계절입니다

올 여름도, 4°C 더 낮은 시원한 바람과
상하좌우 빈틈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당신을 휘감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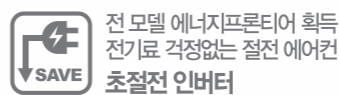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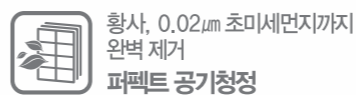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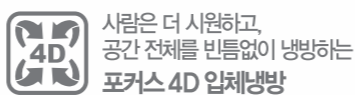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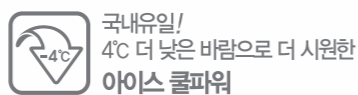
이제, 대한민국은 휘센의 바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2014
신제품

2014년 여름, 대한민국에 불어 올 휘센의 새 바람



LG WHISEN